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을 점점 더 멀리함으로 정의와 책임, 의무가 상실되
어가는 이 시대에 눈을 들어 더 높은 곳을 바라
보고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졌던 청교도 신앙
을 다시 한 번 재현함으로 이 미국에 하나님
의 공의가 충만하게 이뤄지게 하옵소서. 주 예
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
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
지 아니하시면 파수군의 경
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1절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6월 30일 (토) 제 1688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길...”

미 독립기념일 242주년...초기 대통령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재해석

매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는 축하 공
연이 열린다. 워싱턴DC의 대형 잔디 광장인 내셔널 몰에는 수십
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즐긴다.
그러나 독립 축하 음악회의 백미는 워너워나해도 화려한 불꽃놀
이... 해마다 수천 개의 폭죽이 발사되며 워싱턴의 하늘을 화려하

게 수놓게 된다.
작은 성조기를 손에 든 미국인들은 불꽃놀이와 축포에 환호하
며 미국의 독립을 기뻐한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미국이 영국으
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올해 미국은 242번째 독립기
념일을 맞게 됐다.

18세기 후반 영국은 지금의 미국 동부와
남부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지배하고 있었
다. 하지만 영국의 과도한 세금 등 가혹한
정책에 식민지 주민들은 큰 불만을 갖게 되
고, 결국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서 독립을
논의하게 된다. 당시 북미 지역은 13개 식
민주로 이뤄져 있었고, 이 13개 지역 대표
들이 모여 대륙회의를 열게 된다. 1774년
제1차 대륙회의에 이어 1775년 제2차 대륙
회의가 열리고 이때부터 미국 독립전쟁이
시작된다.

미국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1776년 7월 2
일 식민지 대표들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
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7월 4일 대륙회의가
결정한 사항, 즉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결정을 알리는 ‘독립선언문’을 승인하게 된
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이
주심인 ‘독립선언문’은 영국으로
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내용과 함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하나님은 모
든 사람에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
즉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부여했다
고 선언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평등과 인권, 저항
권 등 근대 민주주의 핵심사상을 단순한 이
론이 아닌 실천 강령으로 선언한 최초의 문
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대륙회의는 1976년 7월 4일에 최종 승인
한 ‘독립선언서’의 사본을 다음 날인 7월 5
일에 배포했다. 7월 8일 미 동부 펜실베이
니아 주 필라델피아 시에서 처음으로 사람
들 앞에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

독립선언문이 나오고 1년이 지난 1777년



7월 4일 필라델피아 시에서 처음으로 독립
기념일을 공식적으로 축하하는 행사가 열
렸다. 필라델피아 시는 이날 축포를 쏘면서
종을 울리며 축하했고 밤에는 불꽃놀이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독립기념일을 축하
하는 관행이 미국 전역으로 퍼졌다.
특히 1812년에 미국이 다시 영국과 전쟁
을 하게 되고, 이 전쟁이 끝난 뒤 7월 4일을

미국의 생일로 기념하는 관행이 굳어지게
된다. 독립기념일은 현재 미국이 밖으로 정
한 연방 공휴일이다. 주 정부 차원에서는
매사추세츠 주가 1781년에 처음으로 이날
을 주 휴일로 삼았고, 연방 정부가 인정하
는 법정 공휴일이 된 건 지난 1870년이다.

<3면으로 계속>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뉴저지 한소망교회에서 열린 호산나전도대회에서 강사 이정익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말씀과 만남, 그리고 미래 희망의 축제

뉴저지교협 ‘호산나 전도대회’ 강사 이정익 목사

뉴저지교협의 연례 최대행사인 호산나 전도
대회가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뉴저지
한소망교회에서 열렸다.
말씀과 만남, 그리고 미래 희망의 축제 슬로
건을 내걸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60:1)

라는 주제로 강사는 이정익 목사(신촌성결
교회 원로)가 맡았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서 열린 어린이 대회는 유제니아고 전도사(
지구촌선교회)가 강사로 섰다.
(10면으로 계속)

미국 십대 25%, SNS 외면한다!

퓨리서치, 소셜 미디어 사용과 장단점 설문 결과 밝혀

소셜미디어(SNS)는 친구나 가족과 더 자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환영 받지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사이버 괴롭힘의 위험도 크다. 따라서 놀랍게도 미국 십대
중 약 4분의 1이 소셜미디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SNS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괴롭힘(cyber bullying, 이메일이나 휴대폰·SNS 등으로 특정 대상을 지속
적으로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과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때문이다. 특히 ‘
사이버 왕따’로도 불리는 사이버 괴롭힘은 피해자의 정서를 황폐화시키고, 심하면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eens, Social Media & Technology 2018).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
국 십대의 24%는 소셜미디어(SNS)가
포래에게 대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말했다. 그중 27%는 그처럼

SNS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사이버 괴롭힘이라고 지적
했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ATS 정회원
www.wmu.edu

할렐루야 백화점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 201)346-003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2면
14면
“오직 성령으로” 찬양의 축제로

캠벌랜드 장로회 동부한인노회 2018년도 목사 고시 공고
Cumberland Presbyterian Church East Coast Korean Presbytery
2018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2018년 9월 9일과 10일에 시행될 ‘목사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자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1)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 및 총회가 인정하는 정규 신학교 M.Div학위 과정 졸업한 자 또는 2018년 도 졸업 예정자
2) 본 노회에 가입한 목사 후보생으로 총회 주관의 PAS 과정을 필한 자와 수료예정자
3)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갖춘 자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일자: 2018년 9월 9일~10일(가을 정기노회 기간)
2) 고시장소: America's Keswick (601 Route 530, Whiting New Jersey, 08759)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고사: (1)총회헌법 (2)교회정치 (3) 성경 (4) 면접고사 (본 교단 PAS 교육 수료자는 1번, 2번 고시면제)
2) 제출고시 내용
(1) 소논문: 크리스천이 불신자와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2) 분량: Letter Size 20 Page 이상
(3) 참고도서는 10권 이상
(4) 논문 작성법에 준한 것만 유효함
3) 주제: 롬 8장 1절 -11절
4) 설교: 롬 8장 1절 -11절
(1) 위 주해의 본문을 바탕으로 20분가량의 설교원고 작성
(2) 규격: 소논문과 동일 규격
5) 면접고시
(1) 논문과 주해에 대한 질의
(2) 경건생활, 가정생활, 연구생활, 목회윤리, 사회윤리 등에 대한 질의
(3) 위의 본인이 작성한 원고로 5분 설교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고시청원서
2) PAS교육 수료증, 강도사 인허증 (해당자)
3) 응시자 및 가족사진 각 1장씩, (6개월 이내의 5X7 사이즈)
4) 고시료 \$50 (숙박비 포함)
5. 서류 제출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서류 마감은 8월 26일까지
6. 응시 서류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37 Arizona Ave, Syosset NY 11791
7. 기타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장: Jin Soo Park
Cell: 516) 815-1164. E-mail: jpkorea@hanmail.net
주후 2018년 6월 20일
캠벌랜드 장로회 동부한인노회
노회장: 양부환 목사 고시부장: 박진수 목사



시론

유일하신 아버지



김광문 목사 (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한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시며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마 23: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훌륭한 아버지들도 있지만 모두 유한하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심지어 사무엘까지도 자녀교육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실수도 허물도 없으신 유일하신 아버지이십니다. FATHER(아버지)의 글자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싶습니다.

1. Feed(먹이심) 마태복음 6장 26절("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앉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니니(feed)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시편 136편 25절("모든 육체에 먹은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잘 알려진 통계전문기관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사람이 평생 먹는 음식의 양이 35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와 자녀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2. Advocate(변호하심) 요한일서 2장 1절("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advocate)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은 일생동안 죄인들을 변호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우리들을 위하여 변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말씀("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적하는 마귀 앞에서 우리들을 변호하시는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감옥에 들어간 죄수는 이름대신 변호를 부르게 되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결코 변호로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참 감사합니다.

3. Teach(가르치심) 이사야 48장 17절("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tech)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환경을 통하여 우리들을 가르치시되 반드시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은("육체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기록하심에 참여하시니라") 어려운 환경도 우리들을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임을 알려줍니다. 우리와 자녀들을 반드시 유익하도록 가르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맡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4. Heal(치유하심) 예레미야 30장 17절("너희가 버림을 당하고 보살피 주는 자가 없는 시온이 되었다고 너희 원수들이 말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치료/heal하여 너희 상처를 고쳐주겠다") 페루에서 감옥선교하는 분이 쓴 글인데 많은 수감자들이 어머니날 보낼 카드를 요청하여서 구해주면서 아버지날을 위하여 미리 충분한 양의 카드를 준비했는데 막상 아버지날이 다가왔지만 카드를 달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모르거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는 등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아버지들은 때로 자녀들을 아프게 하지만(hurt)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이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5. Evangelize(전도하심) 요한복음 20장 21절("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가복음 1장 38절("가까운 이웃 마을에도 가서 전도하라.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왔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불치의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도한 후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면서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냐?"라고 물었습니다. 눈에 가득 눈물을 머금은 채 아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다면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6. Redeem(구속하심) 이사야 54장 8절("내가 잠시 분노하여 너를 외면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것은 너의 구속자 나 여호와와 말이다") 오래전 루이지애나의 한 호수에서 기선이 파선되었는데 여섯 자녀와 함께 탄 아버지가 아이들을 해업쳐서 하나씩 육지로 나르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수영을 잘하는 그였지만 다섯 번째 아이를 옮겨놓고는 거의 탈진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지 말라는 사람들의 말에 "아들이 내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나는 가야합니다." 거의 죽게 되기까지 간신히 헤엄쳐서 가라앉고 있는 배에까지 간 그는 무서워 떠는 아들에게 물로 뛰어 내리라고 하였고 뛰어 내린 어린 아들을 품에 안은 채 물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흘리고 죄 없는 독생자를 대신 죽이시는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은 그날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신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아버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에 진정한 유일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pwkim529@gmail.com

'보내는 교회'로의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리더십저널, 리얼라이프교회 짐 푸트만 목사의 교회성장 노하우 소개

목회자들의 마음은 조급하다. 현실의 압박도 심하게 받는다. 성도들의 출석을, 교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 영적 성숙, 봉사, 헌금, 전도, 세상에서의 영향력 등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교회는 위기에 직면했다. 교회가 회심자를 늘리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데는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오래했고 교회에서 봉사로 열심히 하지만 영적으로는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는 교회 건물 안에서 머무른 시간의 분량과 영적 성숙의 정도가 비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은 없을까? 아이다오 주에서, 3개의 캠퍼스 교회를 통해 지역 인구의 80%가 출석하고, 성도의 90%가 소그룹에 참여하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교회'로 꼽히는 리얼라이프교회, 짐 푸트만(Jim Putman) 목사는 그 대안으로, '모이는 교회'에서 '보내는 교회'로의 방향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좋은 리더는 격려만 하는 리더가 아니다. 좋은 리더는 자신의 공동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공동체의 지난 시간이 성공적이었는지, 그 시간의 성과를 돌아보아야 한다. 공동체의 성공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리더만이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자극하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게 한다. 교회 공동체의 리더는 어떻게 성공을 평가해야 할까? 기존에는 교회공동체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평가척도를 주로 사용해왔다: △몇 명이 출석하는가?



치화된 체중과 키를 참조하듯, 교회공동체도 성장을 평가할 최소한의 척도로서 새로운 수치화된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성숙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수치가 단순한 키와 체중에서 벗어나 자녀의 학습시간, 학업성적, 교제하는 친구의 수 등 좀 더 고차원적인 기준의 수치들로 변화하듯이, 교회공동체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 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교회 공동체의 평

'모이기→보내기'로 기준 변경은 공동체에 새로운 가치 제시 '보냄 받은 곳'이 신앙의 활동영역...평가과정이 성장하는 길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건물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결산자는 몇 명인가? 이러한 평가척도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이 척도들을 교회공동체의 성공을 반영하는 여러 지표들 중 일부로 참고할 가치는 충분하다. 그러나 이 척도들이 내포한 가치기준이 교회공동체를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또 가장 자주 제시되는 기준이 될 때, 그 공동체의 리더는 즉시 자신의 성공평가를 전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시키는 교회는 수치로만 그 성공여부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한 자녀는 분명 키가 크고 체중이 늘어난다. 부모는 자녀의 수치가 늘어남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키와 체중의 숫자가 다른 아이들보다 크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그 아이가 성공적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자녀의 성숙은 수치적으

로 나타나는 물리적 성숙 뿐 아니라, 가치관의 성장, 삶에 직면하는 여러 도전 과제들을 경험하고 이겨내는 정신적 성숙을 포함한다. 교회공동체의 경우 기존의 평가표의 수치들은 기계적으로 영아의 키와 체중으로 우량아를 판단하는 수준의 수치일 뿐이다. 단순히 우량아로 자녀를 성장시키는 것이 좋은 부모가 아니듯, 좋은 리더는 교회공동체의 성숙을 평가할 더 고차원적인 평가표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평가척도가 자주 사용되는 것은 그만큼 단순하고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평가척도가 단순하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것은, 한번 제시된 기준을 근본적으로 고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목표치를 일정 기간이 지나 수정할 따름이다. 아이의 키만을 성장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아이가 50센티미터가 되면 목

표를 60센티로 수정하듯이, 출석인원만을 교회공동체의 성공으로 평가한다면 처음엔 100명, 다음엔 500명, 나중엔 1000명으로 때에 맞춰 수치만 조정해지면 된다. 수치 수정의 과정은 평가척도를 변경하기 위한 어떤 고민도 에너지도 들지 않는다. 기계적으로 수치만 늘리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기계적이고 편협하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공동체의 가져야 할 새로운 평가척도를 더 이상 수치화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자녀 성장의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수

거척도는 기존의 '몇 명이 모이느냐, 또는 '몇 명이 모일 공간이 있느냐'와 같이 '모임'을 기준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몇 명을 보냈느냐'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담보한다. 몇 명을 보냈느냐를 수량화된 평가척도로 삼을 때, 그 공동체는 전혀 다른 평가기준, 전혀 다른 성장지향점을 갖게 된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해외 선교사를 몇 명 파송했느냐 하는 기준이 아니다. 이러한 기준은 기존에도 있던 기준이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865-0009(대 표) (323)865-9025(광고국)
· Fax:(323)865-0056(편집국) (323)8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gmail.com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길...”

(1면에서 계속)

자크 마리탕(Jacques Maritain)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카톨릭 철학자는 일찍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인류의 미래를 구원할 유일한 희망은 미국이다.”

그 옛날 유럽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신생국가 취급을 할 때, 프랑스의 지성 자크 마리탕은 컬럼비아 대학교수를 하면서 미국에 살기를 선택했다. 한 나라의 단순한 해방이나 독립이 아니라 미국의 독립은 그만큼 인류의 역사상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바로 건국자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이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벤자민 프랭클린 등 기라성 같은 미국의 건국 지도자(founding fathers)들은 그들이 기초한 독립선언문에서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평등, 행복추구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고 선언했

다. 이것이 '미국의 정신'이며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 맹위를 떨칠 수 있는 큰 국가로 키워올 수 있었던 기본 바탕이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정신과 이상'을 바탕으로 미국은 여러 민족의 이민을 받아들여 인종의 용광로(melting pot, 근래에는 '샐러드'로 표현)인 다민족 국가라는 미국에 대한 인식을 부정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초창기 당시 대통령들이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되는 자리에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자에 대한 나의 애끓는 탄원을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할 것입니다.”

▲존 애덤스, “최고의 공공 서비스

를 펼치고 있는 많은 단체들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에 경의를 표합니다.”

▲토마스 제퍼슨, “이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실 전능하신 이에게 기도합니다.”

▲제임스 매디슨, “전능자의 인도가 있기를...”

▲제임스 먼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존 퀸시 애덤스(시127:1 인용),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숫군의 경성함이 허사롭다.”

▲앤드류 잭슨, “처음부터 이 나라를 지켰던 하나님의 선하심...”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되면 미 전역이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로 들쭉거리다. 한마디로 연휴로서, 또 밤하늘을 수놓은 수 천발의 불꽃놀이 폭죽을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날이 된다. 미 전역에서 거리행진이나 운동회 그리고 기념 음악회가 펼쳐

지며 많은 미국인이 야외로 소풍을 가거나 야는 사람들과 먹거리를 놓고 파티를 벌인다. 지난 2012년에는 미국에서 불꽃놀이용품이 소매가격 기준으로 대략 3억7천만 달러어치가 팔렸다. 그리고 이 많은 불꽃놀이 용품의 대부분은 독립기념일에 터뜨려졌다. 그리고 2015년 통계를 보면, 그릴을 가진 미국인의 76%가 독립기념일에 바비큐 요리를 해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미국의 건국자들이 그토록 붙잡았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국을 인도하신다는 기대와 간구는 참으로 보기가 어려워져만 간다.

2018년 독립기념일에는 링컨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말했던 다음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모든 미국인들의 가슴에서 터져 나오기를 소원해본다:

“이 땅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길...”

소망 칼럼

성도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한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 된 성도는 항상 진실하고 정직함이 생활의 기본 자세이다. 진실은 우리의 속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고, 정직은 진실한 마음을 외부로 나타내는 행동으로서 말과 행실로 마음과 생각을 표현한 것이며 무슨 일이 나 바르고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진실과 정직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거짓과 불의와 불공정은 마귀 사탄의 속성을 나타낸다. 성도들의 인격과 신앙의 기초도 진실과 정직이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무한히 진실하시고 정직하시니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성도들도 진실하고 정직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진실이 있는가를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이 진실한가, 거짓되었는가, 언행이 정직한가, 아니면 불의하고 사악한가를 보신다.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였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누가 묻기를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얻는 대가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을 때 그는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다”고 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가 폴란드의 산림지역을 지나 고향인 실레시아로 가는 도중에 강도들을 만나 모든 물건을 빼앗기고 나서 강도가 “이것이 전부요?” 하니 “예, 전부요” 하고 나서 강도들이 돌아가는데 옷자락 끝에 딱딱한 것이 만져져서 무엇인가 했더니 숨겨둔 금덩어리였다. 그는 돌아가는 강도들을 다시 불러서 그 금덩어리를 내어주니까 아무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빼앗았던 것까지 되돌려 주고 가더라.

진실과 정직만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사람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처음과 나중에 같아야 되고, 첫인상과 후인상이 같아야 되고, 남이 보거나 안 보거나 같아야 되고,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같아야 되고, 집사 때나 장로 때나 변질되지 않고 항상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교인 중에도 처음에는 친절하고 씩씩하게 대접도 잘하는 것 같아도 얼마 안가서 배신한 사람이 많다.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며 약속의 책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키고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한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한다. 불가능한 일 외에는 어떤 손해가 와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서원하고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한 신앙은 가짜 신앙이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과신하였느니라”고 했다. 양심을 버리고 진실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배가 암초에 부딪혀 깨져 버린 것처럼 그 믿음은 깨져 버렸단 말이다. 사탄 마귀의 역사에는 꼭 거짓이 따라다닌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라고 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했다. 진실과 정직이 없는 교인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이단과 거짓 교사, 그들의 모임에 빠진다.

6.25 전쟁 당시 전쟁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영국의 에틀리 총리는 미국과 중국을 화해시키려고 했다. 그때에 정직하고 우직하고 소박한 트루먼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에 머물 것이고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버리면 한국인들은 모두 살해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편에서 용감히 싸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친구를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정직하고 우직하고 소박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한국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nammicj@hanmail.net

미국 십대 25%, SNS 외면한다

(1면에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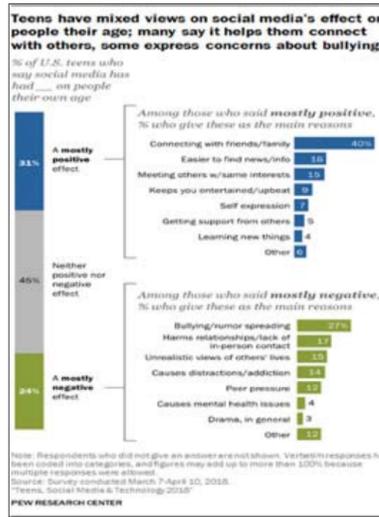
소셜미디어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 십대 사이버 괴롭힘 외에 제기한 다른 문제는 대인관계에 주는 해로운 영향, SNS 플랫폼에서 제시되는 타인의 삶에 대한 비현실적인 상상, 중독과 주의산만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의 13-17세 743명을 대상으로

를 지적했다.

한 15세 소녀는 퓨 리서치 센터의 인터뷰에서 “우리 또래는 소셜미디어 덕분에 외로움과 혼자 있다는 느낌을 적게 가질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SNS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한 15세 소년은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무슨 행동을 해도 처벌 받



온라인 폭력, 사이버 왕따 난무... 자살로도 이어져 대인관계 악영향, 중독, 주의산만... 31%는 긍정적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십대 응답자의 약 45%는 소셜미디어가 특별히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 31%는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소셜미디어를 긍정적으로 느끼는 십대 중 40%는 SNS를 통해 친구·가족과 더 자주, 쉽게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응답했다. 또 일부는 긍정적인 효과로 같은 관심사와 취미를 가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뉴스와 정보를 찾기가 더 쉽다는 점

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명성이 보장돼 무엇이든 내키는 대로 내뱉을 수 있다는 점이 부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습관에 관한 퓨 리서치 센터의 다른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에서 미국의 십대(13-17세)와 성인(18세 이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

거의 끊임없이 온라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십대의 경우 45%였지만 성인은 26%로 그보다 상

당히 낮았다. 또 하루 중 자주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십대의 경우 44%, 성인은 43%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또 인터넷에 그보다 드물게 접속한다고 답한 비율은 십대에선 11%, 성인의 경우는 19%였다. 특히 성인의 11%는 온라인에 전혀 접속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반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십대는 한 명도 없었다.

보낸 받은 '곳'이 신앙의 활동영역이 된다. 모이는 것이 공동체의 최종목적이지 아니라, 보낸 받기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과정으로 여겨지게 된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실제로 신앙을 나누며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 수치는 어떻게 파악하겠는가? 교회 공동체에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그 자료를 모으겠는가? 그 고민을 해결해가는

과정, 교회공동체에 새로운 평가척도를 인식하는 모든 과정이 교회를 더욱 성숙하게,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알림: 독립기념일 정기휴간에 따라 7월 7일자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2면에서 계속)

앞 공동체는 3명의 해외선교사를 보냈으나, 우리는 10명을 보냈기에 우리가 더 성공적이라 말하던 기존의 기준은 겉으로는 몇 명을 보냈느냐 하는 기준으로 보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동체가 그만큼 해외 선교사를 후원할 만한 재정을 모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모이기'에서 '보내기'로 변경된 기준은 공동체에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다. 공동체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세상 속에 투입됐는지 평가해야 한다. 이 '투입'은 일하는 곳, 사는 곳, 학교 등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하며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모든 곳을 의미한다. '모이는 곳'만이 신앙생활의 장소가 아니라, '보낸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롤업배너, 현수막,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2018 교회표어: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

2018 성탄 축하예배: Merry Christmas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레오 1세

역사를 보면 상황이 어떤 개인을 영웅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역적이 되기도 한다. 역사적인 말이 되겠지만 아마도 풍신수길의 조선을 침략하지 않았다면 이순신 장군은 영웅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아주 평범한 지방의 고을 원님 정도로 일생을 보냈을지 모른다. 역시 레오 1세 역시 수많은 교황들 중에서 두 사람에게만 붙여 주는 대(Magnus) 교황이란 칭호를 받게 된 이유도 당시 서로마의 정정 불안 때문이었다.

5세기 서로마는 정치적으로 아주 무력한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망하기 일보 전이었다. 1천년동안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분할정책에 의해 동, 서로 나누어졌고 서로마의 수도도 밀란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밀란으로 옮긴 이유는 알프스 산이 가까기 때문에 준동하는 게르마니아 족들의 침략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로마는 국력이 쇠약해졌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유일한 자존심은 바티칸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바티칸이야말로 베드로의 후계자(?)가 거하는 곳이었기에 불안한 로마인들의 영적 안식처가 될 수 있었다. 1차적으로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자

소위 힘 있는 자들이 보파리를 쌓았고, 또 수도가 밀라노로 옮겨감으로 모든 정치가들이나 출세를 지향하는 자들 및 이권에 밝은 자들이 보파리를 싸 떠났기 때문에 로마는 패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로마사를 기록한 영국의 기본은 당시 로마의 인구가 120만 정도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로마는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 되었으니 그 쓸쓸함을 상상할 수 있겠다 싶다. 폐쇄된 대학교 주변의 풍광처럼...

레오 1세(Papa San Leone, Leo I, 400-476)는 피렌체의 토스카나 지방에서 태어났다. 토스카나 지방은 구름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여 영화의 촬영지로도 선택되곤 된다. 아름다운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게 될 때 성품이 온화하고 감성적인 면이 강하게 된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대가들은 대부분 피렌체 주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조프,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등. 레오는 '사자'라는 의미로 주교가 되어 두각을 보인 인물이었다. 고로 식스토 3세가 세상을 떠나자 그를 만장일치로 교황으로 선출하였을 정도로, 그는 교황으로 있을 동안 중요한 일들을 처리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단에 대한 결단이었다.

콘스탄티노플 근교의 수도원 원

장 에우티케스(Eutyches, -454)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태어나심은 인성이 신성에 의해 흡수되어 신성만 지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단 성설(Monophysitism)인데, 레오는 그를 단죄하고 그리스도는 한 위격 위에 두 본성을 지녔음을 온 세상에 선언하였다. 또한 그는 칼케돈 공의회를 열어 신앙 고백문을 발표하였는데,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다, 신성으로나 인성으로나 모두 완전하다. 신성과 인성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혼합되지도 변화하지도, 구분되지도 분리되지도 않는다.' 이런 결의를 한 것은 성령께서 회의를 개입하신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신학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사람을 하나님께서 공의회를 통해 역사하셨다. 그는 성령의 도움으로 신학적 물줄기를 바르게 돌려놓은 사람이다. 또한 그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곤 하였다.

로마가 무력해지자 주변의 사나운 무리들이 기회를 노리고 쳐들어왔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무리가 바로 유럽의 간담을 서늘케 만든 훈족의 아틸라의 침략이었다. 당시 구라파에서는 아틸라를 얼마나 두려워하였던지 어린아이가 울 때, 우리나라에서는 "울면 호랑이가 온다"고 했는데 구라파에서는 "울면 아틸라가 온다"고 했다고 한다. 아틸라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많았던지 작곡가 베르디(Giuseppe Verdi, 1803-1901)는 '아틸라(Attila)'라는 오페라를 만들 때까지 했다.

아틸라가 로마를 향해 진격하여 올 때 황제는 그를 막을 힘이 없었다. 그는 레오 1세에게 간곡하게 중재를 요청하는 바람에 그 어려운 일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두 사람의 원로원을 데리고 아틸라가 진을 치고 있는 만토바(Mantova)에 있는 그의 진영까지 찾아갔다. 그리고 그와 협상하여 물러가게 했는데 잔인하고 사

나운 아틸라를 물러가게 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다. 하나는 동로마처럼 많은 황금을 주고 물러가게 했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서고트족의 대장 알라릭이 신성한 로마를 약탈한 후 갑자기 비명횡사를 하였는데, 당년도 그럴 수 있다고 겁을 줌으로 두려워하여

는 상상할 수 없이 컸을 것이다. 레오 1세는 로마를 또 한 번 구원했다. 반달족의 지도자 겐세리크가 로마를 약탈하기 위해 로마 근교 오스티아에 진을 치고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겐세리크는 로마인들이 먹어야 할 오스티아 항구에 저장된 수많은 곡물창고에

도둑 혐의하였다. 겐세리크 역시 기독교인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 사람들과의 마음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 궁급해 했다. 천년동안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가 처참하게 망해가는 상황을 들은 어거스틴은 이 세상국가가 아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쓸 수 있었다. 고로 어떤 면에서 볼 때 레오 1세는 서로마 황제보다 더 큰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황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두 번씩이나 건져냈다. 겁 많은 황제는 이런 위기를 보고 출렁랑을 쳤는데 말이다. 이처럼 서로마를 위기에서 두 번씩이나 구원하였으니 그 위세가 어땠을까 싶다. 그는 이런 위세를 몰아 로마 교황의 수위권을 주장하였다.

로마감독의 수위권에 대해서는 스테파누스 1세(254-257)가 처음 주장하였고, 다마스주스 1세(366-384)가 강력하게 주장하였지만 역사적으로 로마의 감독을 교황으로 칭할 수 있는 사람은 레오 1세다. 그는 교황 직을 정착시킨 인물이다. 또한 그는 이교도의 최고 사제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폰티팩스 막시무스(Pontifex Maximus, 전에 로마황제들이 사용하던 명칭)란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람은 누구나 강력한 힘이 주어질 때 자신의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 그래서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이 자식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힘의 특성은 나누어 줄 수도 없고 누구에게 넘길 수도 없다. 고로 힘이 주어질 때 성도는 심각하게 긴장하고 조심해야 한다. 진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말이다.

chiesadiroma@daum.net



물러가게 했다고 한다. 또한 레오가 보좌관으로 원로원 두 명을 데리고 적진에 갔을 때, 베드로와 바울이 칼을 빼들고 레오 1세를 보호하는 형상을 아틸라가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이 형상을 르네상스의 대가 라파엘은 바티칸 박물관에 그림으로 그려놓았다).

아무튼 잔인하고 사나운 아틸라가 로마를 약탈했다면 그 파괴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며 협상이 보좌관으로 원로원 두 명을 데리고 적진에 갔을 때, 베드로와 바울이 칼을 빼들고 레오 1세를 보호하는 형상을 아틸라가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이 형상을 르네상스의 대가 라파엘은 바티칸 박물관에 그림으로 그려놓았다).

푸/른/초/장

정광욱 목사
(글렌데일그리스교회)



마태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겐세마네 동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던 중에 세 차례나 제자들에게 돌아 오셔서 기도하라고 청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가 옵니다. 열둘 가운데 한사람 유다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병사들을 이끌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입맞춤으로 체포할 대상이 이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본문에서 마태는 두 인물에게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47절 "(보라) 열중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우리가 칼을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우리 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 ἰδοὺ(보라)가 유다 이름 앞에 있습니다. 아니 유다 이 사람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마 26:21). 아마도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당사자는 바로 돈주머니를 맡고 있던 유다였습니다. 와, 정말로 배신자가 생겼네. 그것도 그렇게 믿었던 유다가 배신자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칼로 무장하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체포하려면 단단히 무장해야 했을 것입니다. 유다와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이 칼을 들고 온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마태가 놀라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열둘 가운데

하나 유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태는 또 한 사람에게 놀랍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베드로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51절 "(보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여기에 또 우리 말 성경에 빠져 있는 ἰδοὺ (보라)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를 보고

까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위협을 무릅쓰고 칼을 잡았습니다. 그는 칼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겐세마네에

놀란 마태는 베드로를 보고 똑같이 '아니 이 사람이!' 하고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밤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지금도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행동에 놀라고 있습니다. 다시 51절 "(보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왔고 지금도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과 똑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마태는 이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칼을 잡았을

을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위협을 무릅쓰고 칼을 잡았습니다. 그는 칼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겐세마네에

를 방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위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성경의 예언을 거스리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면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맞아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잡혀 가는 모습을 뿔뿔뿔 보고 있어야 했을까요? 대신 나를 잡아 가라 하면서 예수님 앞을 막아 나서야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칼을 들고 맞서는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다가오는 세상에게 칼로 맞고 있는 것 아닌지.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둘 다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5절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12사단 이상의 천군을 당장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동시에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킬 수 없습니다.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네 칼을 제자리에 돌려 놓으라." 즉 베드로의 손은 칼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칼의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일이 자신의 할 일이라, 즉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한 듯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최선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는지,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은 자신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구별하실 수 있었습니다. 칼을 가지고 온 유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시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방향을 택하셨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한 시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다면 베드로 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고 칼을 드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깨달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세월 이슬람 세계 성지로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이슬람 세계는 기독교 세계와 회복될 수 없는 적이 되고 맙니다. 지금 여기에서 십자군 전쟁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열정으로 세상의 무기를 의지해서 행동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돌아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내 생각, 내 바램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일은 말할 필요도 없이 가정과 일터에서 정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질문화, 세상의 정치 논리를 하나님의 일에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칼은 제자리에 돌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뜻을 펼치려는 세상 비즈니스와 똑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겐세마네에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와 유다의 생각과 모습이 다름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모습이 다를 바 없었습니다. 유다도 칼을 들고 베드로도 칼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일은 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신자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구별되지 않는 지금 시대, 교회의 모습이 세상 모습과 같아 보이는 지금 시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련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마 26:41).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칼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없으면 다를 바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7-54절)

를 방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위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성경의 예언을 거스리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면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맞아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잡혀 가는 모습을 뿔뿔뿔 보고 있어야 했을까요? 대신 나를 잡아 가라 하면서 예수님 앞을 막아 나서야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칼을 들고 맞서는 베드로처럼, 칼을 들고 다가오는 세상에게 칼로 맞고 있는 것 아닌지.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둘 다 똑같이' 하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중세 시대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성지 예루살렘이 이슬람 세력에게 포로 잡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교황의 말에 온 유럽이 칼과 갑옷으로 무장하고 중동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 후 150년 이상 진행된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동방 교회의 중심이었던 콘스탄티노플이 폐허로 변하고 회복하려고 했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된 채 오랜

자녀를 신앙수련회에 꼭 보내고 싶지만, 언어의 문제와 집을 떠나 생활하는 불편함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하는 자녀로 인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버지와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다. 아버지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그 집회에 당신의 자녀들이 꼭 가서 은혜 받고 오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아버지 마음은 참 간절하기 그지없는데, 문제는 자녀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쉽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 세 가지를 말해준 기억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한 가지, 부모의 영적권위의 문제였다.

자녀교육은 영권의 문제

먼저는 수련회나 집회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언어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임

역은 자녀의 편리함과 자녀의 선택에 기준을 둘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영적권위를 주셨다. 그 권위는 옳고 그름과 자녀에게 필요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가르치며, 때로는 야단을 치고 훈계하는 것 까지 최선을 다해 행할 권리를 의미한다.

부모의 영권-예배와 기도

자녀문제에 고민하는 아버지에게 세 가지 이유를 설명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한 가지였다. 아버지에게 영권이 약한 것이다. 영적권세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근본 이유이다. 특별히 영적강자인 아버지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세대를 본다. 가정에서 자녀가 제일 우선이 되고, 그 아이를 무한 애정으로 감싸고 있는 엄마, 그리고 뒤 이어

의 기본은 어디에 있는가? 어머니가 예배하는 분이요, 기도하는 분이시라는 데 있다.

식당의 메뉴를 정하는 것과 신앙의 문제, 영적인 훈련은 다르다. 부모의 영권이 부재한 가운데, 신앙문제조차 자녀들의 편리한 생각을 우선해서 생각한다면 그 미래는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본다. 자식의 결정을 추진만하는, 추진조차도 할 수 없는 영권 없는 아버지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이 민주적이며 행복한 해피 홈의 모습인가? 아니다. 가정의 참된 행복은 거룩한 질서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이다.

자식이 방종하고, 부모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지 못하고, 도무지 영적질서가 잡혀있지 못한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어찌 공존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지가 자녀 문제에 대해 허허실실 해서는 곤란하다. 가장장 사회의 부권을 강조하지는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회복을 위해 아버지 어머니의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하나님 안에서 질서의 회복을 통해 영권을 가지고서 자녀를 반듯하게 세우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믿음으로 담대히 사용

도끼날을 사용하지 않으면 날은 녹슬고, 나무 한그루 자르지 못하고 마침내 폐기처분하게 된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권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좋게 좋은 것처럼 하게 되면, 권위 없는 아버지가 될 뿐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없다. 때로는 분란의 요소가 있을지라도, 영적 권위를 사용해야 한다. 사용할수록 하나님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부모의 영적 권위와 질서

-예배와 기도의 회복

을 잘 가르치라는 것이었다. 필자도 중학교 수련회에서 쫓겨 쫓겨, 있는 죄 없는 죄 눈물 콧물 다 빼면서 기도하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때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신앙지식, 세상형편과 상관없이 은혜와 복을 담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아와 말씀을 듣고 읽고 얼마나 이해하고 기억하는가? 그렇게 자세한 기억이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몸을 가지고 나아온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 신앙의 열매가 차이 나는 것을 보게 된다. 언어도 중요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모가 한국 사람인데, 왜 자녀에게 우리말에 대해 더욱 강권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한국말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고, 앞으로 자신만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아이들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한국말은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한국말이기에 피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강권해서 더욱 배우기를 힘쓰고 부끄럼 없이 나아가도록 당당히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모의 영권이 무엇이나 가지고 말했다. 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지는, 짜장면을 먹을지는, 아니면 짬짜면으로 섞어 먹을지는 자녀의 기호를 따라 얼마든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시켜줄 수 있다. 그러나 신앙교육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식당의 메뉴 정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앙의 문제, 예배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영적 훈련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그들의 호, 불호를 따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전적인 책임에 속함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신앙교육의 영

지는 아버지의 역할은 그저 외부적인 물질자원의 공급에만 머물러 있을 뿐 아버지에 대한 복된 두려움이 없다. 그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한 아버지들의 영적각각이 매우 둔한 것을 본다. 엄마는 말씀과 기도에 붙들린 거룩한 잔소리꾼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영적인 코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바른 성경적 분별력을 가지고 가정에 주신 모든 일을 책임지고 분별하는 역할에 가장 우선적인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권세가 자꾸 약해지는가?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배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바쁘고 분주한 이민생활 가운데 피곤하다는 것이다.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의 사모함이 없다는 것이다. 피곤한 인생의 삶이 회복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도와 예배를 막고 있는 것이다. 피곤하고 바빠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너무나 불신앙적인 관점이다. 스스로 하나님 주신 영권을 포기함으로써 정말 중요한 것을 분별치 못하고 놓쳐버리는 것이다.

20년 군목으로 예편하시고 미주에서 사역하시는 K목사님의 이야기이다. 아버님은 소천하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강권해서 더욱 배우기를 힘쓰고 부끄럼 없이 나아가도록 당당히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기도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생각이 달라지고, 입술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 거룩하게 변화된다. 그 가운데 자식의 삶의 문제에 대해 분별하는 아버지의 무릎 꿇은 굽고 간절한 음성은 자녀들에게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다.

지팡이를 의지하고서도

아픔이 노쇠하여 자녀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것을 보라. 영권이 다. 아버지는 믿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셨듯이, 자손들을 축복하는 자의 그 기도에 여전히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었던 것이다. 그 믿음으로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면서, 기도의 손을 얹은 것이다. 그 영권 앞에 자녀들도 함께 무릎을 꿇는다. 믿음이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도 능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저들도 믿는 것이다. 영적질서가 세워지는 믿음의 명문가문의 모습이다.

가정의 영권은 교회의 영적질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영적권위를 인정하고 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은, 교회에서도 영적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와의 영적질서를 분명히 알고 순종한다. 영적질서의 아름다움을 잘 알고 있기에 가능하다. 그런 교회는 복되고 은혜가 넘치며, 성도들의 예배가 경건하다. 그런 예배의 승리자들이 모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은 말씀의 가르침에 복되게 순종한다. 결국 복 있는 자녀에게 전화로 줄을 선다는 것이다. 오는 장관을 만난다든지, 중요한 사업의 파트너로 누구를 만날 계획이든지, 교회의 중요한 일이 있든지 간에 어머니에게 기도 부탁을 서로 먼저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부모의 영권이다. 이 영권

의 주신 것이기에, 법에 합당한 복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용해야 한다. 영권은 신비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가능한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쁘고 피곤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영적권세를 담대히 선포하라. 그 믿음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회복케 하실 것이다.

davidnj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오렌지카운티에서 목회하는 50대 초반의 목사입니다. 개척교회에서 모인 사람의 일부가 나가면서 수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 사례를 전혀 주지 못하고 있기에 제 처가 한 비즈니스를 맡아 하는데 주중에는 제가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목회적 전망이 그리 밝지 않지만 사명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척교회에서 목회해야 할까요?

-가든그로브 정 목사

A: 개척교회는 누구의 말대로 3고(苦)의 길입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인간적으로 외로운 길입니다. 개척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조직화된 기성교회는 일꾼 때문에 힘들고 개척교회는 일꾼이 적어 힘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셔도 감사하고 작게 쓰셔도 감사해야 합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나 주의 종들이 가져야 할 비전은 '원맨 비전'(one man vision)입니다. 원맨 비전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 근거하는데 "

3고(苦)의 길 개척교회, '원맨 비전' 잃지 말아야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비전을 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 목회의 모든 역량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육한흠 목사는 미국 캔자스 주의 "위치타"에서 열렸던 침례교목회자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주 강사였던 빌리 헵크스가 자기에게 의미 있게 던져준 한 마디를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한국에 가서 개척하면 한사람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한사람을 위해 생명을 거시오." 한마디로 빌리 헵크스는 육 목사에게 원맨 비전을 말한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목회하다가 교인수가 늘어나면 물량주의에 빠져서 원맨 비전을 잃고 교인 한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가 크던 적던 상관없이 오직 한사람의 가치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패러다임은 작은 자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초심입니다.

개척교회 목회에서 붙잡아야 할 원맨 비전은 아사야 60장 21-22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민 목회와 제자훈련의 비전입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제자훈련에서 제가 훈련생에게 늘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질은 양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개척교회에서 교인들의 질(Quality)을 위해, 한 영혼과 소수를 위해 투자하고 깊이 헌신하면 때가 되면 수(Quantity)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사도행전을 금요탐구 예배에서 전하기 위해 성경을 묵상하다가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참으로 원맨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사요 역사가인 누가는 기독교의 기원에 대해 두 가지 책을 썼는데 첫 책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첫 책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기술했는데 그분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 그리고 승리의 부활, 승천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와 예수그리스도의 교회의 행적을 말합니다. 이 방대한 두 책을 오직 한사람 데오빌로(로마의 관리) 총독일 가능성이 있는 지성인)를 위해 써보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누가는 엄청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 역사적인 증거와 자료들을 수집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분량은 사도바울이 쓴 13권의 책의 분량보다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장차 잠재력 있는 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것을 내다보면서 이 두 방대한 분량의 책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친 것입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 평 신 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 어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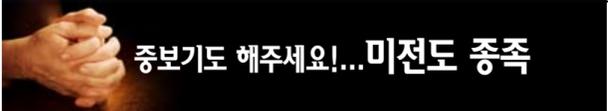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기니비소의 플라쿰다(FULAKUNDA)



플라쿰다 종족은 중부와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걸쳐 거주하는 거대한 종족 그룹인 플라니(또는 플라)

족의 산하 그룹이다. 플라니 종족은 대부분 목축 유목민이며 거의 모두가 무슬림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언어와 거주지 그리고 직업에 따라 작은 그룹들로 나뉜다.

15세기경 플라니 종족이 기니비사우를 거쳐 남쪽으로 이주해오는 동안 일부는 이 지역의 만딩고 종

족과 혼합됐다. 이처럼 만딩고 종족과 통혼한 플라니 사람들은 "검은 사람" 또는 "프레토(preto)"로 간주됐으며 이들은 후에 플라 프레토 또는 플라쿰다로 일컬어지게 됐다. 이들은 니제르-콩고 어족의 서부 대서양 어군에 속한 플라쿰다(또는 플라아르, Pulaar) 언어를 사용하며, 기니비사우, 기니 감비아 등의 나라들 사이의 세네갈 남부 삼림 지역에서 만딩고족과 쿠볼로르족들과 더불어 산다.

삶의 모습

플라쿰다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열대 기후에 야자수와 망그로브 나

무가 우거진 곳으로 플라밍고, 앵무새 그리고 표범들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다.

비록 플라쿰다 사람들이 혼합 문화를 가졌고 이 지역의 "검은" 사람들이 통혼하기를 했지만 "순수한" 플라니 전통과 관습들은 여전히 따르고 있다. 가족과 소떼는 이들의 삶의 중심이며, 실제로 이들의 부의 척도는 그가 가진 소떼의 크기에 비례한다. 덧붙여 일부 플라쿰다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단의 여러 왕국에서 목자로 고용되기도 한다.

농사와 목축을 겸하는 플라쿰다 사람들은 곡식과 우유를 주식으로 하며 육류를 섭취하는 일은 드물다. 실제로 장남의 명명식 따위의 공식적인 주요 행사에는 쇠고기를 먹는데, 그때조차 의식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먹는다.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당나귀, 닭 그리고 개 등을 볼 수 있다.

"우로(wuro, 총각)"는 플라쿰다 사회의 중심이다. 여자들은 여기에서 대부분의 일을 한다. 너댓 시간 들어서 저녁식사 준비를 하고 움막을 짓기 위해 지푸라기와 나뭇가지를 쪼기도 하며 소뿔을 짜 버터를 만들며 다른 중요한 가사 노동을 한다. 남자들은 소떼를 먹이거나 우물을 판다. 아들이 15세가 넘으면 가업을 이어 받아 아버지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을 맡게 된다.

남자가 15세에 이르면 독립된 움막을 짓기 시작하는데 후에 이 움막은 후에 그의 첫 번째 아내와 공유하게 된다. 다른 아내들도 각자 처소를 얻게 된다. 이러한 예비 아내들은 첫째 부인과 잘 지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예비남편에게 "대어"된다. 예비남편은 결혼이 공식화 될 때까지 여자의 가족을 방문해 가족들에게 선물을 준 다.

다른 플라니 유목민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플라쿰다 사람들도 문맹이다. 그러나 문자적인 지식은 부족할지라도 플라쿰다 사람들은 숙련된 사회 분석가로 정평이 나 있다. 어떤 플라쿰다 장로들은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고 각 나라의 언어와 인종 그리고 문화에 정통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신앙

기니비소의 플라쿰다 종족은 모하메드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슬림들이다. 이들은 이슬람의 가르침, 도덕률, 정의, 정직, 관대함 그리고 인내 등의 덕목들을 성실히 따른다. 플라쿰다 사람들은 행락을 사회적으로 용납될만한 행위를 해야 하는 규율과 의무의 장사로 간주한다. 반면 숲은 자유의 장소로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행동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한다.

플라쿰다 사람들은 소외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그들의 감정을 숨기는 경향이 있으며 사랑과 동지애의 필요를 공공연히 표현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적 필요는 단지 노래를 통해서만 인정된다.

필요로 하는 것들

기니비소의 플라쿰다 종족은 거의 모두 무슬림들로 독실한 이슬람교도들이다. 이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가 더러 있기는 하나 그리스도인 개종자는 1%도 되지 않는다. 아마도 이들이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 이슬람을 전파하는데 일조할 책임을 함께 감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을 깨뜨리기 위해 열정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SBC, 37년만에 45세 최연소 총회장 선출

미국 개신교 최대 교단인 남침례회(SBC)가 37년 만에 최연소 총회장을 선출하고 변화의 시동을 걸었다. 총회는 여성과 소수인종을 존중하고 세속 문화에도 관심을 갖기로 했다. 'SBC=공화당 지지'라는 정치적 꼬리표도 뺄 것을 주문했다.



19일 미국 아틀란틱 매거진과 크리스체너티투데이 등에 따르면 SBC 신입 총회장에 노스캐롤라이나 서밋교회 JD 그리어(사진) 목사가 선출됐다. 그는 "SBC에 새로운 문화와 자세가 요구된다"며 "교단을 다르게 인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여성과 소수인종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존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이들을 리더 그룹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목사는 올해 45세로 총대 69%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복음본색' 등의 저자로, 그가 담임하는 서밋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25개 교회 중 하나다. 지난주 밀러스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실시된 161회 SBC총회에는 9600여명의 총대들이 모였다.

미국 기독교 매체들은 SBC가 그리어 목사를 선출한 이상 향후 교단 정책과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총회 현장에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됐다. 총대 상당수는 젊은 목회자들로 구성됐으며 여성과 소수인종 목회자 및 신자들도 대거 참여했다.

총회에서는 가부장적 교단 분위기 쇄신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며 교회 내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침례회가 그동안 여성들의 발언을 금지시키며 비난했던 것을 고백하자는 제안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페이시 패터슨 전 사우스웨스턴침례교신학교 총장의 사임과도 맞물려 있다. 패터슨 전 총장이 여성을 비하한 과거 설교가 지난달 논란이 된 후 SBC 소속 교회 여성 300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임을 촉구했다.

총회에서는 소수인종 출신 목회자들의 부각과 함께 탈정치를 요구하는 총대들의 모습도 보였다. 총회 기간 열린 목회자 콘퍼런스에선 흑인 목회자가 개회설교를 맡았다. 12명의 강사 중 6명이 소수인종이었다. 축사를 전하기 위해 방문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환대를 받지 못했다. 일부 총대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거부감을 표시했고 상당수 총대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단이 정치와 거리를 둘 것을 제안했다.

'미국 남침례교 역사'를 쓴 베일라데 배리 헨킨스 교수는 "SBC의 세대 이동은 교단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다"며 "젊은 세대들은 구세대들이 견지해온 가치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그들은 변화를 요구한다"고 분석했다.

목회자들에게 사무실이 필요 없는 6가지 이유

크리스체너티투데이의 리더십 전문 블로그인 '피벗(PIVOT)'은 최근 '목회자들에게 더 이상 사무실이 필요 없는 6가지 이유'를 게재했다. 칼럼



니스트 칼 베이티스는 "과거에 비해 목회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며 "목회자들은 자체 목양실이나 전용 사무실이 없어도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무실이 필요 없는 이유는 모바일 시대가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교회를 개척하려면 건물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게 첫 번째였다. 그런 다음 목사 사무실을 만들어 전화를 개설해야 했다. 하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 사무실이 없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 목회자들은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다양한 번역 성경과 성경사전, 주석, 히브리어-헬리어 사전을 모두 퍼놓고 설교를 준비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노트북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다.

과거처럼 많은 사람들이 목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점도 사무실이 필요 없는 이유다. 성도들은

목사를 만나기 위해 교회 사무실을 찾는 것 대신 직접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낸다. 요즘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목사와 성도들이 만난다. 목사들이 성도들과 직접 만나기 원한다면 굳이 사무실이 아니어도 된다. 인근 커피숍이나 교회 내 다용도 공간에서도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 사무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출근카드'를 찍고 사무실에 앉아야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무실 공간이 없어도 직무 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사무실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자신이 얼마나 시간을 통제하느냐가 관건이다.

사무실은 창의성을 억압할 수 있다. 목회는 행정적 일이 아니라 창의적 일에 가깝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무실과 책상이 있어야 창의적 생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사무실이 있어야 효율이 높아진다면 사무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목회 일이 창의적이며 개인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역이라면 사무실은 창의성과 의사소통을 억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무실은 목회자들을 성도들과 격리시킬 수 있다. 목양 사무실은 성도와 분리되는 공간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목회자들이 직면한 도전은 목회자가 사무실에 얼마나 머물며 시간을 보내느냐가 아니다. 교회 건물에서 나와 사람들과 부대끼며 만나며 그들이 살아가는 진짜 삶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사무실 마련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사무실이 필요치 않은 현실적인 이유다.

불만만 기록영화 2편 한국 개봉

두 편의 기독교 영화가 울여름 한국 극장가를 사로잡는다. 21일 개봉한 '아이 캔 온리 이매진'과 다음 달 19일 개봉하는 '신은 죽지 않았다 3: 어둠 속의 빛'이 그것이다.



'아이 캔 온리 이매진'은 같은 이름의 CCM 명곡을 만든 미국 CCM밴드 머시미의 리드 보컬 바트 밀라드의 인생과 노래 탄생 뒤에 숨겨진 감동 실화를 그렸다. 1999년 발표된 이 곡은 2003~2004년 빌보드 어덜트 컨템퍼러리 5위, 2017년 빌보드 CCM 디지털 음원 판매 1위, 2018년 빌보드 CCM 음원 1위를 기록하는 등 오랫동안 큰 사랑을 받아왔다.

바트의 아버지 아서는 한때 유망한 미식축구 선수였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 실패를 거듭하면서 폭력적으로 변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바트는 현실을 잊기 위해 음악에 심취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온 바트는 당시 무명 밴드 머시미에서 활동하지만 앨범은 흑평을 받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암에 걸려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둘은 화해한다. 아버지는 죽고 바트는 그를 추억하며 10분 만에 '아이 캔 온리 이매진'을 완성한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J 마이클 핀리가 바트 역을 맡았다. 제작진은 그의 폭발적인 고음에 반해 바로 캐스팅했다고 한다. 아서 역은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로 유명한 데니스 퀘이드가, 바트의 연인 새넌은 할리우드 영스타 배우 매들린 캐럴이 연기했다. 캐럴은 영화 '플립'에서 줄리 베이커 역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기독교교연합(한기연·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은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 CGV에서 시사회를 가졌다. 시사회에 참석한 한기연 임원과 소속 교단 관계자 100여명은 "아이 캔 온리 이매진의 탄생 스토리를 알고 관람하니 더 큰 은혜가 됐다"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신은 죽지 않았다 3'은 친구와 교회를 혼란간에 잃고 회의를 빠진 목회자가 교회 철거 명령에 맞서면서 신앙을 되찾는 과정을 담았다. 150년간 자리를 지켜온 '성제임스교회'의 목사 데이비드 힐은 의문의 화재로 형제 같은 친구를 잃는다. 또 교회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립대가 교회의 퇴거를 요구한다. 학교와의 갈등이 더 깊어지면서 힐 목사는 시험에 든다.

2015년 4월 개봉한 '신은 죽지 않았다 1'은 대학 강의실 내 무신론 논쟁을 담았고, 이듬해 개봉한 '신은 죽지 않았다 2'는 무신론과의 치열한 법적 공방을 다

뤼다. 이번 3편은 북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영화 '위 룸'의 알렉스 캔드리 감독은 "시리즈 중 단연 최고"라고 했고, '예수는 역사다'의 저자 리 스트로벨은 "진리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영화"라고 평가했다.

탈북민 메이 주씨 워싱턴 기록 행사서 증언

"북한에 있을 땐 굶주림의 연속이었다. 아들 치료비를 위해 중국에 갔지만 거기서 과거와 같은 삶을 살았다."



2012년 미국으로 건너온 탈북민 메이 주(40·여씨)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기독교 행사에 참석해 북한에서의 삶을 대중들에게 털어놴다. 그간 몇몇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은 적은 있으나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직접 얘기를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크리스천포스트와 세계기독교연대에 따르면 주씨는 1978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10살이 되던 해 그의 가족은 당국 정책에 따라 양강도 지역으로 쫓겨났다. 굶주림이 일상인 곳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구하기 위해 산에 올랐다"고 했다.

특히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90년대 중후반 기근은 극에 달했다. 주씨는 자신의 딸을 죽여 배를 채운 한 이웃 아저씨 이야기를 전하며 "정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주씨의 삶도 비슷했다.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해 국경 지대를 전전하며 아등바등했지만 돌아오는 건 남편의 가정폭력이었다. 딸도 3살 되던 해 열차에 치어 죽었다. 아들이 있었지만 남편의 부주의로 3도 화상을 입어 병원 신세를 졌다. 그러나 약을 구할 돈이 없었다.

주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부모에게 돌아갔다. 아들 약값을 벌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 식당 일을 알선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중국에 도착한 그는 2300달러에 중국인 농부에게 팔렸다. 농장에서 그는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 죽도록 일한 뒤엔 3200달러에 중국인의 아내로 팔려갔다. 그는 "탈북 여성들은 나처럼 노예나 신부로 팔려간다"고 했다.

2년 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지만 국경수비대에 붙잡혀 수용소로 끌려갔다. 얼마 뒤 풀려나긴 했으나 중국에서 모은 돈 1300달러도 모두 빼앗겼다. 설상가상 전 남편과 아들의 소식마저 끊겼다. 그녀는 다시 탈북을 감행했다. 주씨는 다시는 자신이 태어난 나라에 돌아가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그 땅에 침을 뱉은 후 한겨울 두만강을 홀로 건넜다고 증언했다.

트럼프, 대북제재 연장...북한에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기존의 대북 제재를 1년 연장했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열흘만이다. 회담 이후 양국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 한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및 주요 인사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 금지 등 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대 미군과 동맹국 및 교역 상대국을 위협하게 하며 도발적이고 불안정하고 억압적인 북한의 조치와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제재 연장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 국가비상조치법(NEA)의 일률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말 해오던 의회 통보 및 관보 게재 절차를 다시 밟는 행정적 차원이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전까지는 여전히 북핵을 큰 위협으로 간주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

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시에 혼혼한 회담이 개최된 지 불과 10일 만에 북한에 대한 엄한 어조를 보인 점 등에서 주목할 만하다"면서 "미국 안보에 대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문구가 역사적 정상회담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끝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 후속조치에 힘을 들이면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의 최근 세 번째 방중을 계기로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이 이는 등 북·중간 밀착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 차례 취소시켰다가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계속 후속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다시 대북 강경 모드로 돌아설 수 있음을 경고한 신호로 풀이된다.

결론 EU 정상 모임...난민문제 뾰족수 못내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4일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8~29일 열리는 정례 EU 정상회의에서도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16개국 정상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비공식 미니 정상회의를 열어 난민 문제를 논의했다고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가 오갔다"면서도 "구체적인 결론이나 결과는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8개 회원국 모두를 기다릴 순 없다"면서 "양자와 3자 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아프리카·중동 난민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나라의 정상들은 더블린 조약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처음 들어온 EU 회원국에 망명 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반(反)난민 정책을 앞세워 집권한 이탈리아의 우파 포퓰리스트 주세페 콘테 총리는 "난민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터키와 리비아 등에 난민보호센터를 설립해 망명 신청을 받고 EU 국경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탈리아는 난민 600여명을 대운 구조선 아쿠아리우스호의 임항을 거부했다.

난민 문제를 둘러싼 EU 정상들의 갈등이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쟁점 조약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우리가 난민 문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쟁점 조약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비둘기 드론으로 반체제 단체 감시

중국이 기존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비둘기 모양의 드론(무인항공기)을 개발해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일부 지역에서 운용하고 있다. 비둘기 드론(사진)은 새들도 같은 무리로 착각할 만큼 정교하게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내 5곳 이상의 성(省)에서 인민해방군과 정부기관 등 30개 이상 기관이 비둘기 형태의 드론 및 관련 장치를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비둘기 드론은 특히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인도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이슬람 분리주의운동이 거센 신장위구르자치구 등에서 중앙정부의 감시·통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 드론은 코드명 'Dove(비둘기)'라는 새로운 '스파이 조류' 프로젝트로, 시안 서북공업대학의 쑹비펑 교수가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쑹 교수는 중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J-20' 개발 프로그램의 선임 과학자로도 유명하다.

이 드론은 실제 비둘기 동작의 90% 정도를 구현했으며 기존 드론과 달리 날개를 퍼덕이면서 공중으로 솟아오르거나 회전하는 동작이 새와 비슷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 드론은 2000차례 이상의 시험비행을 거쳤다. 드론이 비행할 때 새들이 진짜 새로 착각해 함께 날기도 했고, 겁이 많은 양 떼도 바로 위로 지나가는 드론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힘의 원리

역사는 우리가 지닌 것 중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쳐준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세상의 일들은 일시적인 것들의 연속일 뿐이다. 이와 같은 성경적 역사관의 가르침을 거부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된다. 자연적으로 극히 제한되고 임시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신봉하게 된다.

중세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이미 우리는 4-6세기에 걸쳐 이뤄진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인하여 유럽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북유럽 발트 해 연안에 거주하던 게르만족이 앵글로색슨족과 프랑크족 등은 서부로, 반달족과 고트족 등은 동부로 남하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지상에서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로마 제국의 힘이 붕괴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 게르만 족의 대 이동은 고대를 벗어나 중세 유럽 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커다란 사건이었다.

새로운 힘이 나타나면 기존의 힘을 향해 도전장을 던진다. 갈등의 시기를 지난 뒤,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더욱 큰 힘을 지닌 존재로 군림하게 된다.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면, 중세시대에 이와 유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생겼을까? 이런 변화들이 역사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잠시 노르만족의 이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노르만족은 '북쪽 사람' 또는 '북쪽에서 온 사람'이란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되었다. 스칸디나비아에서 유래한 그들은 '바이킹'의 후예들이다.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백인이었던 그들은 장대한 체격을 지녔으며, 일반적으로 바다를 주름잡던 해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미 북쪽에서 내려온 게르만족의 대이동에 이어서, 또 하나의 강한 힘을 지닌 민족이 유럽을 향해 남하한 것이다.

노르만족

노르만족은 모두 세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노르웨이 계통의 노르만족은 아이슬랜드와 그린랜드, 나아가서 북미지역까지 이동하였다. 우리의 관심은 다음의 두 방향에 있다. 덴마크 계통의 노르만족은 프랑스 북서쪽에 노르망디공국을 세웠다. 스웨덴 계통의 노르만족은 러시아에서 노브고로드공국을 건설하였으며, 후에는 이탈리아의 최남단에 자리한 시칠리아 섬을 정복하여 자신들의 왕국을 성공적으로 건설하였다.

먼저 잉글랜드를 정복하여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한 덴마크 계통을 살펴보자. 그 중심에는 노르망디를 통치하던 정복자 윌리엄(William the Conqueror, 1028-1087, 현대 프랑스식 이름은 기욤)이 있다. 그는 노르망디의 공작이었다. 봉건제도의 특성상 프랑스 왕 앙리 1세(Henry I, 1008-1060)의 신하로서의 신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였다. 그래도 윌리엄은 군사적 힘을 지닌 통치자였으므로, 위협을 느낀 앙리 1세가 노르망디를 침범하였지만, 자신의 영토를 굳건하게 지켰다. 사실 윌리엄의 관심은 프랑스를 대적하는 일보다, 노르망디 바다 건너편에 위치한

잉글랜드에 집중되어 있었다.

잉글랜드 침공을 노리던 윌리엄이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 전쟁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었다. 한 국가의 운명이 달린 전쟁이었다. 윌리엄이 앵글로색슨족이 자리 잡고 있던 잉글랜드의 왕이

작한 것은 전쟁에 능했던 장정들이 용병으로 고용된 후부터였다. 그들은 본국에 있는 친지들에게 그 곳을 소개하면서 건너와 함께 지낼 것을 권면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세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에 속했던 시칠리아를 정복하게 되었고,

머리의 힘

알렉시우스 1세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기 전, 로마제국의 황제를 꿈꾸던 시칠리아의 로베르트와 맞서 전쟁을 치러야 했

르만족의 군병들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알렉시우스 1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무엇이 장애물이었을까? 그와 버금가는 머리의 힘을 지녔던 우르반 2세의 정책 때문이었다. 우르반 2세는 겉으로는 마치 알렉시우스 1세의 부탁을 받아 소아시아를 정복하는 일을 위해 십자군을 창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성지를 탈환하는 일을 십자군의 궁극적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놀랍게도 그의 머리에는 이미 서방 교회는 물론 동방 로마제국을 섭렵하여 통치하는 강력한 힘을 지닌 교회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십자군은 알렉시우스 1세의 부탁에 응한 결과로 이뤄진 일이었지만, 우르반 2세가 지녔던 머리의 힘이 버금가는 힘을 이긴 사건으로 기억될 수 있어야 한다.

알렉시우스는 1차 십자군이 대거 동방 로마제국으로 넘어오자, 그들을 분열시키는 전략을 세워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다. 1차 십자군의 병력은 신성로마제국, 노르망디, 잉글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 각국에서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 그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이거나, 통일된 전략에 따라 군사 훈련은 물론 통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사실 십자군을 하나로 묶어줄 수 없는 집단이었던 것이다.

머리의 힘, 십자군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원인이 바로 이것이다. 대부분의 십자군들은 자신들 나름대로의 그림을 머리에 지니고 참가하였다. 가장 좋은 예로, 로베르트의 아들 보에몽을 들 수 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알렉시우스 1세의 동로마 제국을 대항하여 싸운 경력을 지닌 전사이다. 그 역시 지도자의 입장에서 1차 십자군 운동에 참여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예루살렘 공략에 참가하지 않고 안디옥공국에 남아 그곳의 공작이 되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꿈을 부분적으로 이룬 것이다.

시간이 흘러 자신이 지닌 머리의 힘을 믿는 자들의 횡포가 가중되면서 십자군들의 힘은 더욱 분산되었다. 결국 그나마 순수한 신앙적 동기로 십자군을 주도하던 지도자들까지도 알렉시우스 1세의 의도를 알게 되었고, 그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어떤 힘?

분산된 힘은 그 어떤 효과도 발휘할 수 없다. 힘을 모으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어떤 것일까?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 머리의 힘은 어떤 형태의 군사력, 경제력, 지력, 그리고 조직력을 능가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 상태이다.

현대교회가 영적 암흑기를 지났던 중세 교회로부터 배울 점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너와 하나로 마음을 맞추려 하지 말아야 한다. 유일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13)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게르만족 대이동으로 중세 유럽사회 시작, 노르만족 가세 노르웨이계통 덴마크계통 스웨덴계통 3방향 남하 힘겨루기

되었다. 북으로부터 남하하여 노르망디에서 공국을 세운 그들이, 결국 잉글랜드에 노르만 왕조를 세워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된 것이다. 초기에는 앵글로 색슨족과 갈등을 겪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서로 융화되어 잉글랜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노르만족이 지녔던 힘으로 인하여 향후 중세 이후 유럽의 판도가 크게 변하게 된다.

한편 스웨덴 계통의 노르만족은, 대단한

그 중심에는 로베르트 기스카드(Robert Guiscard, 1059-1085)가 있다.

시칠리아에 자신의 왕국을 세운 로베르트는 동방 로마제국의 황제에 오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상황을 살핀 뒤, 그 당시 동방 교회와 적대관계에 있었던 서방 교회의 교황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교황 역시 황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로베르트와 유대

다. 결과는 알렉시우스 1세의 승리였다. 그가 지녔던 머리의 힘 때문이었다. 유효하였던 작전은 노르만족 내부에 있었던 로베르트를 반대하던 불만 세력과의 공조였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자극하였고, 그 결과 로베르트는 내란을 진압하는데 힘을 빼앗긴 채 1084년에 동방 로마제국을 공격하였으나 전염병에 걸려 사망하게 되었다. 알렉시우스 1세가 지닌 머리의 힘은 여

긍정적인 결과 기대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은 마음에 있어 인간끼리 마음맞춤 아닌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고 공유해야

힘을 앞세워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에 왕국을 건설하였다. 유럽이 동서로 나뉜 유럽의 상황에서, 이들이 동서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미 함께 살펴본 '카놋사의 굴욕' 사건의 말미에,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 교황청을 침범하였을 때 교황 그레고리 7세는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탈리아 남부로 피신하였다. 우리는 왜 하필이면 서방 교회를 다스리던 교황이 노르만족이 세운 왕국을 피신처로 선정하였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시칠리아의 노르만족

노르만족이 시칠리아에 자리를 잡기 시

관계 맺은 것이 유리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불행하게도 그레고리 7세는 로베르트에게 피신한 뒤 곧 사망하였다. 그 자리에 오른 교황 우르반 2세는 정적이었던 황제 하인리히 4세가 로마를 장악하고 세운 대립 교황 클레멘트 3세를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수한 두뇌를 지녔던 그는 고민을 거듭한 결과, 자신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것은 자신의 조국인 프랑스와 동방 로마제국과 손을 잡는 것이었다.

우르반 2세가 누구인가? 그는 십자군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의 유명한 연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원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우르반 2세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가 진전된 상황에서, 알렉시우스 1세는 우르반 2세에게 중요한 부탁을 하게 되었다. 용병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다.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당시 동방 로마제국은 서방으로부터 군사적 원조를 받을 필요가 없던 상황이었다. 알렉시우스 1세는 소아시아를 점령하는 계획을 지니고 있었기에, 더욱 공격적이고 용맹한 군사가 필요했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알렉시우스 1세의 머리에는 어떤 용병이 그려져 있었을까? 그들은 다름 아닌, 시칠리아의 노르만족이었다. 그들은 로베르트가 사망하고 난 후에도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우르반 2세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는 한때 자신을 침공한 노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음악대학 및 대학원

(BM,MM,DMA 학위과정)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교수진! 실기 일대일 교육, 100% 온라인 이론 강의!

<p style="text-align: center;">(i)</p> <p style="text-align: center;">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p> <p style="text-align: center;">CAMS 시스템을 통하여 100% 온라인 음악 강의를 실시되고 있으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수진들의 최고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p> <p style="text-align: center;">최고의 교수진</p> <p style="text-align: center;">유럽과 미국에서 최고의 기량으로 각 음악실기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교수들로부터 일대일 실기 실습과정이 on and off line 에서 이뤄지고 있다</p>
--	--

세계 음악지도자 발굴과 양성을 위해 Missouri주 Wentzville에 32년의 전통을 지닌 Midwest University의 교수들은 유럽 및 미국의 유수 음대대학원 음악박사 학위자들로 각 영역에서 최고의 기량과 리더십으로 겸비된 연주자들로써, 현재 지도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엔 한국 예술종합학교, 이탈리아의 Giovanni Paisiello Conservatory, 독일의 Hochschule für Musik Karlsruhe, 미국의 Manhattan School of Music, Johns Hopkins Peabody Conservatory, The Juilliard Music School 출신자가 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학사 Bachelor of Music 129 학점
- 석사 Master of Music 48 학점
- 박사 Doctor of Musical Arts 60 학점
- 전공 : 피아노, 음악코칭, 성악, 지휘, 작곡, 현악, 관악기, 음악융합예술

모집기간

2018년 7월 13일까지

지원자격

- 학부 :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동등 학력자
- 대학원 : 음악대학졸업 (Musical Arts Convergence 전공은 음악교육대학 졸업자도 가능) 혹은 동등 학력자
- 박사 : 학부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음악을 전공한 자

학위 취득방법

-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Visa
- 직장, 사역을 떠나지 않고 어디서든지 세미나, 소집특강, 온라인으로 학점취득
- 영어, 한국어, 중국어 언어로 학점 취득 가능

Midwest 음악동문

구두회박사 (前 숙대 음대 학장), 황병덕박사 (前 연대 음대 학장), 박재호박사 (前 한양대 교수), 윤학원박사 (前 중앙음대 학장), 전희준박사 (前 찬송가총회대표) 등 일반 음대교수 수십명이 활동중이다.

입학, 편입, 유학 등 자세한 문의는 미국본교 (636)327-4645 usa@midwest.edu / 입학상담 Dr. Dae Kim (dgkim@midwest.edu) / 등록상담 Mr. Jay Ham (muadm@daum.net)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4645 / Fax : (636)327-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4750 / Fax : (571)730-4751

E-mail : wdc@midwest.edu

성경도 신앙 (54) 국가, 정치, 교회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5. 청교도의 정치적 영향

우리는 같은 기독교 신앙을 소유했지만 국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 신학적인 입장이 다른 두 무리의 청교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세상에 대하여 적대적인 자세를 가진 문화 변혁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보는 입장과 공동체의 경건을 중시하는 입장을 비교함으로써 같은 청교도 신앙이라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두 주류 가운데 미국 역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친 사상을 알 필요가 있다.

1) 플리머스의 분리주의자의 영향

회로 나아가게 되었다.

나) 개인주의의 혼동을 가져왔다
이러한 개인주의의 사상은 무질서와 방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플리머스의 분리주의적 영향의 일조로 인하여 양심을 가진 판단의 기준으로 두면서 절대적인 의미의 진리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 결과 상대적인 것이 진리로 인식되었다. 어떤 형태든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악으로 간주되었고, 인간이 좋다고 하면 바로 선으로 인식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1960년경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 미국 사회의 중심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음란한 그림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보급되었고, 양

윌리엄 브래드포드(William Bradford)는 뉴잉글랜드에서 30여년 간의 세월을 회고하면서 2세대들이 1세대의 신앙을 잇고 배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플리머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개탄하였다. 또 인구의 감소, 기독교 신앙과 부모의 희생에 대하여 무관심한 젊은 세대들, 경제적인 풍요와 함께 사치가 만연하게 된 현상은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징계라고 주장하였다.

1642년의 플리머스의 상황에 대한 그의 보고는 충격적이다. 그는 플리머스에 "음주와 패륜이 만연해 있고 동성연애자들과 거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죄성에 근거한 개인주의가 빚어내는 황폐한 인간 사회를 묘사하면서, "인간의 부패성은 억제하거나 복종시키며 죽이기 힘들다. 그렇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분리주의적인 신념에 기초하여 세워진 플리머스는 뉴잉글랜드에서 소수의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1691년 10월 결국 매사추세츠에 합병됨으로서 막을 내렸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보스턴의 청교도들이 영향을 받은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제 31장 1항은 "온 세상의 최고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력을 허용하였으니 이는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다."

정부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 전형적인 성경은 로마서 13장 1-7절이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사도는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기독교인이 순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 왜 그런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립니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차취하리라" 하셨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31장 2항에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로 임명될 때에 공직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적법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변비

고혈압약 등 약물 부작용도 원인

서구화된 식습관과 걷지 않는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의 질병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흔한 변비에서부터 각종 암의 발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은퇴를 앞둔 60대 중반의 회사원 김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변비로 고생해왔다. 젊을 때부터 가끔 변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물을 많이 마시거나 운동을 하고 사과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좋아졌지만 이번에는 위와 같은 노력에도 변비가 좋아지지 않았다. 대변은 3일에 한 번씩 보는 편이고 한번 화장실에 앉으면 변을 보는데 20분 이상 걸리고 그 양도 많지 않았다. 또 배변 후에도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지는 않았고 색깔도 정상이었다. 변비 때문인지 가끔 아랫배가 아픈 느낌이 있었다. 김 씨는 6개월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당뇨병이 있지만 약물 치료로 잘 조절되는 편이었다. 담배는 과거에 많이 피웠지만 5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고 끊었고, 술은 저녁식사 후 포도주 한 잔 정도 마시는 정도다. 평소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의학적 검사상 별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김 씨가 복용하는 혈압약의 부작용으로 변비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혈압약을 바꾸고 비약물적 치료인 식이요법과 운동을 시작하도록 권했다. 또 한 번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를 받도록 권유했다. 김 씨의 변비 증상은 위와 같은 비약물 치료로 호전되었다.

미국인의 1/4이 변비 증상을 느끼고 있으며 일년에 250만 명이 변비 때문에 의사를 찾는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변비는 일주일에 3번 이하로 대변을 보거나 변을 볼 때마다 배변 양의 4분의 1정도만 보는 경우라고 정의한다.

변비의 원인은 다양하다. 첫째, 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 경우다. 고기나 치즈, 햄 등은 섬유소가 적어서 소화되고 나서도 대변의 양 자체가 적고 장운동을 감소시켜서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도 변 자체를 굳게 해서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셋째, 장거리 자동차 운전이나 의자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사무직 직장인도 평소 움직이지 않는 습관 때문에 장운동이 부족하면 장운동이 저하되어 변비가 생기기 쉽다. 넷째로 김 씨의 경우처럼 약물도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혈압약이나 진통제들이다.

그 외에도 갑상샘 저하증이나 과민성 대장증상, 당뇨병 등도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대장에 생긴 종양도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유 없이 만성변비로 고생하는 경우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분리주의자들 개인 자유 강조로 무질서와 방탕으로 이어지는 계기 조성 양심의 자유 주장은 인간 죄성 무시... 절대적 의미의 진리 사라지게 해

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 것이다
분리주의자들이 미국에 끼친 영향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신앙양심과 경제적 풍요를 위해 신대륙에 이민하여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였다. 국가의 기초를 개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데 두고, 이를 억제하는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면서 인본주의적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분리주의자들의 인본주의적 사상은 미국의 독립 전쟁 때에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을 통해 세롭게 태어났다. 그는 종교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아니라 사람, 하나님과 이웃 사이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종교적 견해의 차이를 부정하였다. 교회로 인해 세상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개인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퍼슨의 영향을 받아 미국 헌법이 작성되면서부터 미국 사회는 점점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사회로, 공동체 중심에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개인주의 사회로 바뀌어갔다.

1780년에 나온 매사추세츠 주의 헌법 제 1조항은 "모든 사람은 태어 나면서 자유하며 동등하다"고 선언하였고, 미 연방 헌법 첫째 수정안과 권리선언 16조가 언론과 출판의 자유 보장을 선언하여 인권 중심의 사

심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동성연애 주의자들이 생겨났고, 이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이런 현상은 신학교에도 번져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정기적으로 호모와 여성 동성애 모임이 있고,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서도 동성애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장로교 총회에도 동성연애의 합법성을 주장하다가 이제는 장로교의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장로교(PC USA)은 이를 동성애 합법화를 교단에서 가결하고 말았다.

다) 분리주의의 개인주의에 대한 자체 반성
개인주의의 악영향이 가져온 상황을 보면,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을 무시하는데서 온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지적이 이미 개인주의를 주장했던 플리머스 지도자들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17세기 초반 플리머스에 거주하던 로버트 쿠쉬먼(Robert Cushman)은 식민지의 경제가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혼란스럽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1621년 말에 쿠쉬먼은 플리머스에 거주하면서 '죄와 자기 사랑의 위험들'(The sin and Dangers of Self-Love)이라는 설교를 하였다. 이 설교를 통해서 그는 식민지의 경제를 혼란으로 이끌어 가는 개인주의를 비판하면서 사회적으로 응징할 것을 주장하였다.

2) 비분리적인 보스턴의 영향

비분리적인 청교도들은 변혁적인 문화권에 기초하여 영국을 개혁하고 신대륙에 이민하여 전 세계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경건한 사회를 건설하여 미국의 기초를 놓았다. 그들은 양심의 자유를 거스리지 않는 것은 다 옳다고 보는 플리머스의 분리주의자나 현대 미국의 헌법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악을 금지"하였다. 공적인 모임에서 정부나 교회 지도자들을 욕하거나 이교적이고 파괴적인 것, 또는 반역의 경우 벌금이나 태형에 처하도록 하고 공민권을 박탈하여 죄악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여 경건한 사회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노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으로 간주하여 직업윤리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재력이나 학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고, 회심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교회 회원권을 주어 성도들이 다스리는 사회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청교도에 의한 노동은 신성시하는 직업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고, 법이 다스리게 하고, 법 아래서는 통치자이든 국민이든 평등하게 함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초석을 마련하게 되었다. 아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당대에 인류 역사상 가장 죄가 없는 경건한 사회가 이루어졌다.

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적용
청교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다. 그 직분에 종사함에 있어서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가와 위정자에 대해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속 정부를 세우셨다는 점이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에 있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무력을 허용하셨다는 것이다. 기독교인들도 공직을 맡아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들에는 그 무력을 행사하여도 정당하다는 것을 밝힌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규례를 준권하게 여길 것과 세속 정부의 직분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순복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다.

이런 의무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로마의 교황은 세속적인 권한에 대하여 아무 권리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덧붙여 밝히고 있다. 하지(A. A. Hodge)는 "어떤 사람들은 세속정부의 권한 또는 적법한 권세의 기원이 궁극적으로는 피지배자의 동의와 다수의 의지 또는 사회생활이 최초로 시작되던 때의 인류의 조상들에 의해 맺어진 사회 언약에 있는 것으로 여겼다."

younskulee@hot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www.rptseast.org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신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전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학 과

대학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목회서신

사탄의 10대 전략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사탄학'을 연구해보면 사탄이 적어도 10가지의 전략을 통해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절망(Despair, Hopelessness) 교만이란 사탄의 부추김이라면, 절망은 사탄의 방해전략입니다.

1. 교만(Arrogance, Pride) 가장 오래 되었으면서도 효과적인 사탄의 유혹 방법은 바로 교만이란 무기입니다.

3. 비교의식(Comparison, Parallel) C.S. 루이스는 현대의 마귀는 비교의식을 통해 인간을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4. 의심과 불신(Doubt, Unbelief) 의심은 때로는 진리탐구의 자극제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의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5. 거짓말(Lia-Liar) 거짓말의 본질은 사탄에서 비롯됩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아버지입니다.

않으려면 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6. 미움(Hate) 미움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7. 불평과 원망(Complaint & Grumble) 불평과 원망의 속성은 점점 심해진다라는 점입니다.

8. 지연(Delay, Lateness) 사탄은 선한 일을 계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계획하면 그것을 지연시킵니다.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지연작전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9. 불성실(Insincerity, Untruthfulness) 사탄은 자신의 일에 부지런한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고, 항상 게으른 사람, 불성실한 사람들을 끌어서 유혹해 이용했습니다.

10. 외식(Hypocrisy)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외식은 천국 가는 길을 막는 마지막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자” ...참전용사 감사행사 경해 남가주목사회, 6.25전쟁 68주년 상기에배

남가주 한인목사회(회장 샘신 목사)는 6.25 한국전쟁 68주년 상기에배 및 참전용사 감사행사를 24일 오후 4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가졌다.



남가주 목사회 6.25 한국전쟁 68주년 상기에배 및 참전용사 감사행사에서 강희만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샘신 목사는 “올해는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이 발발한지 68주년이 되는 해”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용감히 싸우셨던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다.”

참전용사 감사행사는 재미민병전우회의 기수임장, 국민이레,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인사말, 내빈 소개로 이어졌다.

이어 '6.25 한국전쟁 그 이후'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관람하고 이날 참석한 참전용사들에게 선물 및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미주대표)가 참전용사를 위한 기도를 했으며 김해룡 회장(대한민국 6.25 참전용사자회 미서부지회)의 답사가 있었다.

(박준호 기자)

이날 예배는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 축도로 마쳤다. 샘신 목사 사회로 열린 2부 참전



미주장신대는 콜로라도 덴버에서 개최된 북미 신학대학원협의회(ATSS) 창립 100주년 기념 Biennial Meeting에서 정회원 학교로 승인받았다

미주장신대, ATS 정회원 자격 취득 270여 회원 학교와 학점 및 학생 교류 가능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이하 미주장신대)는 6월 20일과 21일 콜로라도 덴버에서 개최된 북미 신학대학원협의회(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 이하 ATS) 창립 100주년 기념 Biennial Meeting에서 정회원 학교(Accredited Member)로 승인받았다.

ATS가 지난 100년 동안 축적한 업적을 돌아보고, 그 유산과 전통을 이어가면서 다음 세대 혁신을 모색하는 이번 뜻 깊은 모임에서 미주장신대가 정회원 학교로 승인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미주장신대 측은 밝혔다.

ATS는 1917년 설립된 이후 신학

교육의 건전한 방향 제시를 통한 권위와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북미주 신학대학원 인가 기관이다. ATS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270여 개의 신학대학원 회원학교가 가입돼 있다.

ATS 정회원 학교로 승인됨으로써 미주장신대는 270여 회원학교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학점 및 학생 교류가 가능해졌다.

1977년 설립 이후 미주장신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과정에서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교육을 제공하는 한인디아스포라의 대표적인 선교 지향적 학교다. 현재 성서대학교협의회(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정회원 학교이기도 한 미주장신대는 신학학사(B.Th.), 교역학석사(M.Div.), 크리스천상담심리석사(MACCP), 선교학철학박사(Ph.D. in Contextual Studies), ESL 과정이 있고, 학사 및 모든 석사 과정은 100% 온라인 과정과 동일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영주권/시민권 소지 B.Th. 학생들은 연방정부 교육국으로부터 학자금 보조(Title IV)도 가능하다. 아울러 다문화, 다민족의 국제적인 신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해 현재 토요전일제 B.Th. 영어 클래스도 개설하고 있다.

작년 11월에 디아스포라 지역 한인 신학교 최초로 ABHE로부터 선교학 철학박사(Ph.D. in Contextual Studies) 학위를 인가 받아 전 세계를 무대로 선교적 영성과 섬김으로 사역할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기사제공: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주최 제68주년 한국전쟁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원산서 피난민 철수시킨 SS레인빅토리호에서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한국전 68주년 기념식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회장 이우호 목사)가 주최한 제 68주년 한국전쟁 기념식이 23일 오후 5시 샌페드로 항에 정박돼 있는 SS레인빅토리 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신회성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행사시작 전 뉴이스트 한인학교의 K-팝 퍼포먼스와 유수경 한국전통무용팀의 전통무용 공연이 펼쳐졌다.

조응규 의원은 “SS레인빅토리호는 한국전쟁이 있었던 1950년 12월 7일 원산에서 7,009명의 피난민을 싣고 부산으로 갔던 배이자 2차 대전 말 미 군수송선 중 하

나”라고 소개했다. 그는 “홍남철수작전에 투입된 메르디스 빅토리호로 인해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한 게 안타깝다”며 “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 그리고 국민들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상규 미셸스틸박 OC수퍼바이저 보좌관이 축사했으며 조광세 미주한인지도자협회 총회장, 영희 하원후보가 축사했으며 이후 호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신회성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행사시작 전 뉴이스트 한인학교의 K-팝 퍼포먼스와 유수경 한국전통무용팀의 전통무용 공연이 펼쳐졌다. (박준호 기자)

본사방문

‘말씀과 삶의 일치’ 이루는 ‘말씀실천운동’ 전개

송택규 목사 (말씀실천운동본부 회장)

55년 된 고평사들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된 백기현 교수(공주해일감리교회 장로)가 지난 7월 7일부터 31일까지 미주지역 순회 집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본사를 방문했다.



‘본사를 방문한 송택규 목사

‘성막영성’(진흥출판사)을 통해 구원의 서정을 5단계로 설명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로드맵(Roadmap)을 제시함으로 ‘성막영성’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송택규 목사가 급변에 새롭게 ‘말씀실천운동’을 전개하며 ‘말씀과 삶의 일치’를 호소하고 있다.

부했다. “성경에도 보면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나 교회

그의 지론이다. 이 운동을 전제하는 것은 목사들도 아니다. 젊은이들도 아니다. 정작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은 70세-92세에 이르는 노장 평

신도들이다. 그들은 “진실된 믿음은 자연스럽게 삶속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새로운 무브먼트를 이루고자 호소한다.

송택규 목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를 염려하고 기독교의 부작용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라며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운동은 꼭 필요한 운동이지만 매우 미약한 가운데 태동했다고 설명 한다. 이 운동을 위해 “짧고 말씀에 바로선 젊은 세대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교회와 성도들이 적극 참여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바른 신앙을 정착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말씀실천운동본부’는 홍보지 발간, 교회 연합 운동,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유튜브 동영상 제작, 강연과 웬변대회 등을 통해 활발하게 움직일 계획이라고 말한다.

자세한 것은 (213)663-8640이나 urinanoom@gamil.com 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동부교계 기사판



한미교계 지도자 초청 기도회

한국과 미국의 정계 및 종교 지도자 초청 기도회가 7월 10일(화) 오전 11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장에서 열린다. 강사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와 Rev. Owen E. Williams(미국 퀸즈교회협의회 회장). 참석자들에게는 선물과 스테이크 식사를 제공한다. 뉴욕교협 사무실로 예약해야 한다.

▲문의: (718)279-1414, 이메일 nyckcg@gmail.com

2018 할렐루야복음화대회 장학생 선발

뉴욕교협(회장 이만호 목사)이 2018 할렐루야복음화대회 장학생을 선발한다. 대상은 현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또는 12학년 제외)으로 선발기준은 신앙과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평균 3.25이상). △장학금신청서(교협양식, www.nyckcg.org) △신상고백서 △답답목사 추천서 △사진(1.5X1.5)을 보내야 한다.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를 우대한다. 신청마감은 7월 31일(화) 오후 5시

▲문의: (718)279-1414, 이메일: nyckcg@gmail.com

뉴욕수정교회 제 9회 미션콘서트

뉴욕수정교회(담임 황영송 목사)는 7월 1일(주) 저녁 6시 대에베실에서 제 9회 미션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여류 단기선교를 후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아이티 단기선교(6월 8-15일)와 오하이오 피난민 선교(7월 14일-8월 4일)를 계획, 총 5팀으로 약 80명의 성도들이 참여한다. 티켓은 10불이며 당일 교회에서 구입 또는 기부가 가능하다.

▲문의: (718)461-9800

청소년 학업과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청소년 학업과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이 9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린다. 대상은 10학년과 11학년으로 선착순 20명. 수업은 12 SAT 클래스, 2 Practice Test, 2 리더십 세미나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전액지원하며 디파짓 400달러는 프로그램 수료시 전액 반환한다. 등록마감은 8월 1일(수). 등록신청서와 학교 성적표, 세금 보고서, 인터뷰 등이 필요하다.

▲문의: (201)242-4422

가현욱 박사 초청 특별간증집회

뉴욕어린이양교회(담임 박운선 목사)가 7월 8일(주) 오전 11시 예배와 오후 2시 30분 예배에서 가현욱 박사 초청 특별간증집회를 갖는다. 가현욱 박사는 피츠버그 대학교 재활과학&기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문의: (718)899-8309



미동부 지역 ATS 한인동문 체육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미동부 지역 ATS 한인동문 체육대회

미동부 지역 2018년 ATS(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한인동문 체육대회가 6월 18일 오전 11시 퀸즈 알리 폰드 파크에서 열렸다. 이날 3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운동으로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김연수 목사 인도로 기도 박근재 목사, 설교는 오바울 목사가 '작은 구름에서 폭우'(왕상 18:41-46)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

했으며 민병욱 목사가 광고했다. 점심식사 후 경기에 들어가 축구와 배구 경기를 가졌으며 경품 및 선물 증정하는 시간도 가졌다.

동문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오바울 목사 △부회장 김연수 목사 △총무 민병욱 목사 △서기 김유선 목사 △회계 이재두 목사 △감사 박근재 목사.

(기사제공: 미동부 지역 ATS 한인동문회)

“고난에서 찬송으로”

글로벌뉴욕여성목연 6월 어머니기도회

글로벌뉴욕여성목회자연협회(회장 권금주 목사)가 주최한 제 19차 어머니기도회가 6월 20일 오전 10시30분 기쁨과영광교회에서 열렸다. 6월 기도회에는 특별히 암환자 사역을 하는 새생명선교회(대표 심의례 전도사) 회원들을 초청해 위로하며 후원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최근선 목사 인도로 기도 김경자 목사, 말씀 전희수 목사, 합심기도 안경순 목사, 헌금기도 오영의 목사, 후원금 전달 권금주 목사, 새생명선교회 소개 심의례 전도사, 광고 박도보라 목사, 축도 권금주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전희수 목사는 “고난에서 찬송으로”(룻4:13-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소망으로, 어려움을 희망으로, 눈물의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주시는 분”이라며 “사람이 한 생애를 살다보면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일들을 당할 때가 있다. 그러나 갑자기 닥쳐오는 고난 앞에서 선택과 결단을 잘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선택은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창대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룯의 두 가지 결단(첫째, 희생의 결단 둘째, 믿음의 결단)을 소개했다.

전희수 목사는 “오늘 어머니기도회에 참석하신 어머니들의 인생에서도 룯과 같은 희생과 믿음의 결단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계시다”며 “그 열매는 눈물로 드린 기도의 결과임을 알고 주님께 찬양드리다”고 말했다.

2부 친교는 심화자 목사 오찬기도 후 새생명선교회 회원들을 환영하고 위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20차 어머니기도회는 7월 18일(수) 오전 10시30분 기쁨과영광교회(전희수 권금주 목사)에서 열린다.

▲연락처: (646)247-8258

(기사제공: 글로벌뉴욕여성목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뉴저지교협 2018년 호산나전도대회 성료

(1면에서 계속)

뉴저지교협회장 윤명호 목사는 2018년 호산나전도대회가 “주의 말씀으로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고 삶과 인격이 변하여 새로워지는 매 순간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뉴저지 교협은 집회마다 지원금을 전달했다. 첫날은 11개 미자립교회(총 11,000달러)에 전달했으며, 둘째 날에는 선교단체에, 셋째 날에는 북미원주민단기선교팀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또 사역단체들을 소개했다. 첫날은 러브NJ, 둘째 날은 아버지학교, 셋째 날은 북미원주민선교를 소개했다.

대회 첫날은 양종길 목사 인도로 개회선언 윤명호 목사, 경배와 찬양 러브NJ 찬양팀, 기도 강영안 장로, 사역소개 박근재 목사, 성경봉독(빌4:1-7) 송호민 목사, 말씀 이정익 목사, 봉선기도 김신용 목사, 봉



호산나전도대회 첫날 11개 미자립교회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헌찬양 뉴저지권사함장단, 광고 박인갑 목사, 미자립교회 지원금 전달식, 합심기도(뉴저지 지역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이우용 목사, 축도 김중국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정익 목사(희망재단 대표)는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선물 3가지는 예수님, 성경, 성령”이라며 “이 선물은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위함인데, 왜 이렇게 우리

를 대우하시는가? 그 이유는 첫째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라, 둘째 전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목적 있는 신앙의 삶 6가지, 즉 현대교회가 갖추고 강화하고 내 신앙을 되돌아보는 덕목으로 ①평화(2절): 공동체를 허무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 ②전도를 더 존경하라(3절) ③항상 기뻐하라(4절) ④관용(5절) ⑤사랑(1절)-정체성을 가지라 ⑥기도하라(6절)-너 자신을 위해, 이웃을 위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길

기다려라”고 말했다. “작은 일에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따라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둘째 날은 고한승 목사 인도로 경배와 찬양 뉴저지아버지학교 찬양팀, 기도 이정환 목사, 사역소개 이봉실 지부장, 성경봉독 백형두 목사, 찬양 한소광교회성가대&뉴저지시모함장단, 말씀 이정익 목사, 봉선기도 최봉호 장로, 봉헌찬양 뉴저지장로성가대, 광고 김상웅 목사, 선교단체 지우너금 전달식, 합심기도(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목회를 위하여), 유재도 목사, 축도 이의철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셋째 날은 안명훈 목사 인도로 경배와 찬양 북미원주민단기선교 찬양팀, 기도 존김 목사, 사역소개 김학룡 목사, 성경봉독 이종해 장로, 찬양 아플라연합감리교회 성가대, 말씀 이정익 목사, 봉헌기도 송재현 목사, 봉헌찬양 뉴저지남성목사함장단, 광고 홍인석 목사, 사역소개 손태환 목사(이민자보호교회 위원장), 북미원주민단기선교 지원금 전달식, 합심기도(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오병준 목사, 축도 이병준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정익 목사는 둘째 날 “영혼의 떨림을 경험하라”(눅5:1-11), 셋째 날 “시대의 주역들이 되라”(출 33:7-1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또 25일 오전 10시부터는 “사랑, 사랑, 동역”(요8:1-11)이라는 제목으로 목회자세미나를 인도했다.

한편 뉴저지교협은 교협 35년사 역사 편찬을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있다(문의: 김상웅 목사 845-499-1921).

(유원정 기자)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반도 평화행진 홍보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인연합감리교회 평화위원회 위원들.

백악관 앞에서 한반도 평화행진

7월 28일, 한인연합감리교회 평화위원회 주관

한반도 평화축제(Korea Peace Festival & Vigil 2018)가 7월 26일부터 사흘간 워싱턴DC에서 열린다. 26, 27일에는 예배와 한국 문화 공연, 평화 회의를, 28일에는 평화 기도회와 백악관 행진이 이어진다.

이중 26일(목) 평화 대행진을 위해 한인연합감리교회 평화위원회(The Peace committee of the Korean Association)가 지난 26일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준비위원장 조진삼 목사는 “한반도 평화행진은 한인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다인종도 함께 하는 행진”이라며 “워싱턴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의 교회들이 참여한다. 뉴욕에서도 많이 참가해줄 바란다”고 말하고 중국 연합감리교회 등 다 인종 커뮤니티에서도 동참할 것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일정은 28일(토) 새벽 6시 대형 버스로 출발해서 11시30분부터 행진이 시작된다. 버스 안에서 시청 각 자료를 통해 통일과 평화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된다. 등록비는 일인당 20달러(점심, 저녁 제공)이며 중고등학생들은 무료, 대학생은 10달러를 내면 된다.

김정호 목사는 “한반도 평화는 미국 의회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힘들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특히 최근 남북 정상

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 등 한반도 평화문제가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이번 평화축제와 잘 맞았다”며 “평화위원회의 30년 동안 계속돼 왔으며 이번 평화행진도 이미 계획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로 시간이 잘 맞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평화위원회는 2014년에 워싱턴DC 같은 장소에서 평화대행진을 통해 평화행정에 대한 염원을 보여준 바 있다.

평화위원회측은 이번 평화축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합의를 재확인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다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축제는 인터넷 사이트(www.umcjustice.org/what-you-can-do/events/korea-peace-festival-and-vigil)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이날 조진삼 목사(평화위원회 평화운동위원장)와 김정호 목사, 김진호 목사 송학삼 집사(후러싱제일교회), 이용연 목사(동북부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 회장), 유허덕 목사(타인종목회자 회장)와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및 뉴욕연회 여성교회 소속 임원들(김순덕, 김명래, 이성옥, 김성실, 박혜영)이 참석했다.

(유원정 기자)



글로벌뉴욕여성목연 6월 어머니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NJUCA 고등학교 제 13회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들.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기자회견을 마치고 신철식 한국본부 회장(오른쪽 세 번째)과 뉴욕지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대한민국 건국 정체성 바로 알린다”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건국70주년기념 뉴욕포럼

지난 23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 기념 뉴욕포럼 개최를 앞두고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미주총회장 김남수 목사)가 22일 오후 1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욕지회장 김명옥 목사는 “올해가 건국 70주년인데 어떤 단체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미주총회가의 해외동포들에게 건국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며 그동안 17-18차에 걸쳐 세미나를 열어왔는데, 이번 기회에 정부와 모든 기관은 물론, 한인사회에 건국대통령으로서 이승만 박사에 대한 바른 조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강사로 초청된 신철식 회장(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한국본부)도 참석했다.

신 회장은 “이승만 박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왜곡되고 폄하됐으며 건국 역사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이번에 미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뉴욕과 워싱턴DC, 필라델피아, 시애틀, LA, 하와이 지부를 순회하면서 지회들을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세운 첫 한인기독교회가 올해 100주년을 맞아 7월 3일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전 세계가 아는 사실(fact)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 이번 포럼에서 건국 이전과 건국 이후 이바사의 활약과 역할, 업적, 공과에 대해 알게 된다”며 “흔히 이승만 박사를 독재자, 미제앞잡이, 부정선거자라고 알고 있는데 농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토지개혁은 오히려 국회의원(지주) 전원이 반대했으며, 오히려 미국을 이용해 외교적 성과를 얻었으며, 남북통일을 위해 한미동맹을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신철식 회장은 “김일성, 박헌영도 전집이 대한민국 도서관에 있는데 이승만 전집은 없다”며, “지나해 부어 이승만 전집 발간 작업을 시작했고 완성은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지회는 “이승만박사 바로 보기”라는 저서를 배부하고 있다(연락처: 718-539-5700).

(유원정 기자)

NJUCA 고등학교 제 13회 졸업식

2004년 기독교 영성을 중심의 기독교 리더 양성을 목표로 미주 최초로 한인에 의해 설립된 정규 사립 중고등학교인 뉴저지크리스천아카데미(New Jersey United Christian Academy, 이사장 신정하 박사, 교장 Mrs. Angela Lowe) 제 13회 졸업식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15일 저녁 6시 중부 뉴저지 크립리지에 위치한 본교 강당에서 열렸다.

Angela Lowe 교장의 사회로 Faculty로 구성된 미국가 중창, 신정하 NJCA 재단이사장의 개회선언, 키 스피커인 학교 재단 이사장 나정용 목사의 축사로 이어졌다.

나정용 목사는 성경의 참세기를 인용하며 하나님이 축복으로 창조된 인생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꿈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라 하며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졸업생을 격려하며 축복했다.

이어서 우수 졸업생에 대한 시상과 졸업생의 고별사가 있었고 학교의 전통인 졸업생 한명 한명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다

이어서 졸업장 수여와 졸업생에 대한 축복 기도로 식은 종료됐다.

올해 개교 15주년을 맞은 크리스천 사립 중고등학교 NJUCA는 기독교 영성 중심의 소수 정예 교육에 진력하여 영성과 지성 그리고 감성을 고루 갖춘 미래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기사제공: NJUCA)

반대 98.5%, 한인타운 지켜냈다! 분리안 부결... 월서주민의회 현 구역 그대로 유지

한인타운을 지켜야 한다는 한인들의 절실한 마음이 하나로 뭉쳐 패를 이겼다.

남가주 LA에 위치한 한인타운 분할을 위한 리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구역 확정안 투표 개표 결과 거의 99%에 달하는 1만8844표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한인타운을 구역으로 하는 월서주민의회(WCKNC)는 현 구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지난 19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하버드 초등학교와 나성열린문교회에서 실시된 투표에 대한 20일 개표에서 총 투표 수는 1만9,126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찬성표는 282표(1.47%)에 그쳤고 나머지 98.53%에 해당하는 1만8,844표는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 1만9,126표 가운데 1만4,700여 표는 우편투표를 통해, 나머지 4,400여 표는 전날 2개 투표소에서 접수된 표들이다.

리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구역 확정안 투표는 방글라데시 커뮤니티가 '리틀 방글라데시' 구역 확정 요구청원서를 LA시에 제출해 지난 3월 23일 승인을 받았으며, 6월 19일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LA한인타운 지역을 대변하고 있는 월서센터-코리야타운 주민의회가 '두 동강이 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리틀 방글라데시' 구역 확정 요



남가주 LA에 위치한 한인타운을 분할하기 위한 리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구역 확정안 투표가 98.5%의 투표율로 확정안이 부결됐다

구 청원서에 따르면, 남북으로는 11가와 멜로즈가, 동서로는 웨스턴가에서 버몬트가까지에 이르는 월서센터-코리야타운 주민의회 지역 중 남북으로는 5가와 멜로즈가, 동서로는 버몬트가에서 웨스턴가까지를 신설되는 리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구역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인타운의 3분의 2를 리틀 방글라데시로 하겠다는 안건이었다.

이에 대해 한미연합회(사무국장 방준영)과 LA한인회(회장 로라진), 남가주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 그리고 2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Keep Korea Town이 한인타운 분할을 저지하는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19일 실시된 투표에서 한인들은 나성열린문교회 투표소의 경우 오

전 11시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투표 시작 시간인 오후 2시 직전에는 6가와 베렌도 코너에서 시작된 줄이 5가를 넘어 뉴햄프셔로 꺾이는 곳까지 'Z'자로 3블록 넘게 이어지는 장관을 연출했다.

하버드 초등학교 투표소는 오후 1시부터 줄이 형성되기 시작해 투표 시작 시간에는 약 200명으로 붐볐고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났다. 리틀 방글라데시와 지리적으로 가까



제32회 레위남성성가단 정기연주회에서 레위남성합창단과 포이에마 여성합창단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

"열정 더욱 갖고 찬양사역 헌신하겠다" 레위남성성가단 제 32회 정기연주회

레위남성성가단(이사장 박태영) 제 32회 정기연주회가 24일 오후 7시 남가주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에서 열렸다.

박태영 이사장은 "레위남성성가단 연주회가 올해로 벌써 32주년을 맞이하게 됐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임을 깨닫고 믿음과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시간이라 될 것"이라 말했다.

박 이사장은 "레위남성성가단이 더욱 열정을 가지고 찬양사역에 헌신하겠다"며 "이번 연주회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소희 아나운서(GBC) 사회로 열린 이날 연주회는 레위남성성가단이 '예수 나를 오라하네', '주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두님만 찬양하

운 이곳 투표소에는 방글라데시 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참여하거나 허잡을 두른 여성들이 서너 명씩 뭉쳐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투표자의 절대 다수는 한인들 이었다.

이날 투표는 마감시간인 오후 8시까지 줄을 선 사람들 모두 투표할 수 있게 해 거의 자정 무렵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줄 서 있던 대부분의 한인이 3-4시간을 끝까지 기다려 투표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한인회와 한미연합회, Keep Korea Town, 그리고 뉴스타부동산 등에서 결성된 자원봉사자들이 한인타운 분할저지를 위해 한인타운 내 마켓에서부터 투표장까지 마련된 서틀로 끊임없이 유권자를 실어 날랐고 투표용지 작성팀은 서류작성을 도왔다.

땀방에서 투표장 입장을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 물과 과자를 제공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빵과 김밥을 나눠줬다. 심지어 베렌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한인인 오렌 시간 줄 서 있어 화장실이 급한 사람들에게 집 화장실을 쓰도록 배려하는 등 한인타운을 지키려는 간절함이 단합된 마음으로 표출이 됐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성경 세미나

샌디에고우리교회(담임 정복근 목사 4847 Mercury St) 성경세미나가 7월 2일(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나를 넘어서는 성경읽기'라는 주제로 열린다. 강사는 김근주 교수(기독교연구원 노헤미야).
▲문의: (858)688-3166

박종호 찬양간증집회

웨스트힐장로교회(담임 오명찬 목사)는 '초심'이라는 주제로 박종호 찬양간증집회를 7월 6일(금) 저녁 7시30분에 갖는다.
▲문의: (818)884-2391

신학생 장학생 모집

토폰세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는 신학생 장학생 모집한다. 대상은 목회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목회학(M.Div) 석사과정 입학 예정자나 재학생, 신학자 양성을 위한 장학금은 신학공부를 위한(M.Div 제외) 대학원 과정 입학예정자나 재학생이며 이력서, 패터 용지 5장 미만분량의 에세이(주제: 목회자 양성장학금: 이 시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볼 때, 나는 미래의 목회자로서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가?/ 신학자 양성장학금: 이 시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진단할 때 나는 미래의 신학자로서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가?), 추천서 2부(학업이나 사역현장에서의 추천서 최소 1부)를 7월 22일까지 이메일(ftpcpcusa@hot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310)618-2222

찬양사역자 박종호 콘서트

리버사이드침례교회(5413 Tyler St)는 찬양사역자 박종호 콘서트를 7월 8일(주) 오후 5시에 갖는다.
▲문의: (951)684-4070

도전과 소망...80대-20대 7명 참가 소망소사이어티, 제4차 차드 비전트립 보고회

소망소사이어티가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한 제4차 아프리카 차드 비전트립 보고회를 26일 오후 1시 30분에 가졌다. 7명의 참가자 중 개인적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3명을 제외하고 4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비전트립 동안의 일정과 느낀 감회 등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차드에서 필요한 물품인 쌀, T-셔츠를 비롯해 실링, 선글라스, 구형 휴대폰, 의류 및 의약품등을 개인 및 기업에서 후원받고 랩탑 컴퓨터 3대를 선물로 가져간 비전트립팀은, 판 우물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돌아보았으며, 직접 우물 파는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고, 수해지역을 방문해 쌀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보고했다.

이번 비전트립팀은 유분자 이사장과 정영길 목사 등 80대 참가자에서부터 20대 오드리야 자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최연소 참가자인 오드리야 자매(UC버클리대)는 "한국과 이태리에 여행을 가보긴 했지만 비전트립은 처음"이라며 "아프리카 차드로 가기 전 차드의 역사 등에 대해 공부했다"고 말했다.

오드리야 자매는 "차드는 낙후돼 있다. 아이들은 카메라 등 전자자기에 대해 생소해 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모습은 매우 순수했다"고 말하며 "차드에 필요한 것은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비전트립 참가자 명단이다.

△유분자 이사장(소망소사이어티, 80대) △정영길 목사(소망소사이어티 명예이사, 연합감리교회 은퇴목사, 80대) △최효영 대표(인터내셔널 대안, 60대) △김경준 목사(로렐나무아래 교회 담임, 호스피스원목, 40대) △김민영 간호사(뉴욕 거주 RN, 30대) △김기훈 전도사(30대) △오드리야(버클리대 학생, 20대). (정리: 박준호 기자)



CMM회원과 함께하는 찬양과 간증 콘서트에서 로고스선교회 관계자와 출연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CMM회원과 함께하는 찬양과 간증 콘서트

기독교료상조회(CMM) 회원과 함께하는 찬양과 간증 콘서트가 24일 오후 5시 풀러턴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로고스선교회(회장 박도원 목사) 주관으로 열린 이날 콘서트는 소프라노 최정원, 바이올리니스트 차인홍 교수(오하이오 라이트 주립대학교), 피아니스트 백승화 가 출연하여 수준 높고 아름다운 공연을 펼쳤다.

소프라노 최정원 씨는 '참 좋은 주', '웃자락에서 전해지는 사

랑', '사명' 등을 불렀으며 바이올리니스트 차인홍 교수가 '나의 작은 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했다. 그리고 최정원 씨와 함께 '연', 'You Raise Me Up'을 함께 공연해 이날 모인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또한 이날 로고스선교회, 기독교료상조회, 로고스하우스에 대한 슬라이드쇼를 상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 영아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8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회: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후 5:30(월-토) 수-금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1: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협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영아) 주일 학교: 오전 10:00 말씀찬양예배: 오후 5:30 토요찬양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교회: 오전 9: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 오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아전 (영소:KDC, 킹덤드림센터) 수요일: 오전 9:20 2부: 오전 9: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중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영아전 (영소:KDC, 킹덤드림센터) 금 요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배: 오후 7:30 Tel: (714)719-2244, Fax: (714)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c.org	디아스포라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9178 (전화 팩스 발송),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H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3부: 오전 11:00 (청년찬양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mpcj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lin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 학교: 오전 5:45(월-금) 새벽 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kc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kcc.org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이영성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아동부/청소년부: 오전 11:00 청년부 성경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성령강화회: 오후 7:0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전: 오전 2:00(대학부)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8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웨스턴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저녁 7:30 금 요 예배: 저녁 5: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일찬양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아)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아)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찬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2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교회: 365번 221가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30(영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45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j.org	중은마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www.socisamsungchurch.org / e-mail: pastor@laccornestone.com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per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stone.org / e-mail: pastor@laccornestone.com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8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토렌스노인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청년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8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GMS 2018 세계선교대회’ 개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전략 모색

“복음의 브리지! 열방의 브리지! 다음세대 브리지!”

지난 25일 오후 대전 서구 새로 남교회(오정호 목사) 예배당에 모인 해외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 파송교회 목회자 1000여명의 목소리에 한국교회와 선교지 교회, 다음세대가 동반자로서 함께 세워나갈 비전에 대한 기대감이 엮여있었다. 이날 개최된 ‘GMS 2018 세계선교대회’ 참석자들은 표어를 제창하며 3박4일간 진행되는 대회의 본격적인 막을 열었다.

세계선교대회는 전 세계 98개국에 2525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이사장 김찬곤 목사)가 총회 선교 111년, GMS 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한 축제이자 미래 선교 준비를 위한 전략 공유의 장

이다.

GMS가 선교대회를 개최한 건 2003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이번 대회를 위해서는 개막 2개월 전부터 선교사들을 초청해 교단 산하 160여개 교회를 순회하며 선교의 시대적 과제와 지향점을 알리고 세계선교에 대한 열정 회복을 주문했다.

대회장 김찬곤 목사는 인사말에서 “선교대회는 GMS의 역량을 과시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선교 역사를 반추하고 평가해 선교 사역의 방향과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선교지별 새로운 ‘전략 매뉴얼’을 마련하고, 후원 교회는 효과적인 선교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대회 기

간 동안 다양한 토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선교대회는 주제 강의와 특강, 지역 및 선교 영역별 발제와 회의, 아침 경건회와 저녁 부흥집회 등으로 일정표가 채워졌다.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어지는 만만치 않은 일정이다.

GMS 선교총무 조용성 선교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뽐뽐하게 진행되지만 영적 충전시간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톨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세계 선교계의 거장 조너선 봉크 박사와 박기호 미국 풀러선교대학원 교수의 주제 강의는 놓치고 있던 선교의 본질과 핵심을 짚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교대회 마지막 날인 28일엔 ‘교회개혁 중심 사역’을 넘어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중심 사역’으로의 비전, 다음세대 및 통일 후 선교를 향한 목표 설정 등이 담긴 대회 결의문이 발표됐다.

“국내 이주민 귀국 후 양육시스템 뒷받침 돼야”

KWMA 권역별 토론회서 이용웅 GP선교사 발표

국내 이주민 선교의 최대 장점으로 한국교회의 인프라 활용이 꼽혔다. 이주민 선교가 효과적으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선 귀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현지 양육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용웅 GP선교사는 20일 부산 해운대구 수영로교회에서 열린 세계선교협의회(KWMA) 선교전략회의(NCOWE) 권역별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이주민 선교전략’을 발표했다.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는 인권 차원에서 출발했다.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많던 2000년대 초반 경기도

화성과 인천 등지의 교회들이 외국인 공동체를 만들면서 본격화됐다. 현재는 ‘교회 안의 교회’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자양육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쉼인데 이 같은 방식이 한국교회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대표적 사례다.

이 선교사가 경기도 의정부에서 사역 중인 외국인 공동체 펠로우십 교회는 당초 의정부 성암교회에서 시작했다. 교회 공간과 봉사자, 목회자 등 성암교회가 갖고 있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재정이 소요되지 않았다. 이 선교사는 “이주민들에게 있어서 외국인 교회는 소통과 정보 교류의

장이자 외로움을 달래는 고향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면서 “선교 대상자가 스스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안한 신분과 잦은 이동은 제자 양육의 걸림돌이다. 제대로 양육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귀국하면 신앙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선교사는 “한국교회가 새신자 교육을 하듯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신앙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그 상태에서 귀국하면 ‘신앙의 미야’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면서 “귀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현지 선교사들을 연결하는 ‘선교지 양육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가 한반도 평화 정착 구심점 돼야”

국민일보목회자포럼 ‘한반도 평화와 교회의 역할’ 주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교회가 남남갈등 해소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교육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일보목회자포럼(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정기포럼에서다. ‘한반도 평화와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반 전 총장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박종화(국민문화재단 이사장) 목사가 패널로 참석했고 소강석 목사가 진행을 맡았다.

반 전 총장은 “지금의 남북 화해 분위기는 국제 정치사적으로 볼 때 굵은 축적으로 기록될 ‘세기의 사건’이라며 “한국(韓國)과 미국이 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면서도 평화와 통일의 주체는 남한과 북한이 되어야 한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CO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빠져 의혹이 많지만 완전한 비핵화 없이 경제제재 해제도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지렛대 삼아 점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들이 도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의 연설은 ‘목회자 역할론’으로 귀결됐다. 반 전 총장은 “목회자들은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정신적 지도력이 큰 분들인 만큼 교인들을 평화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회의 역할은 토론에서 더욱 강조됐다. 박 목사는 “한반도엔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서독교회가 동독교회에 분단 기간 중 무려 3조3000억원에 달하는 현금과 물자를 지원했다는 통계가 있다”며 “끝이 보이지 않는 분단 상황에서 서독교회가 인내를 갖고 동독을 지원한 경험을 통해 현재 한국교회들이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무조건 퍼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인내와 신뢰를 갖고 북한교회와 접점을 넓히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연수 등을 위해 독일에서 2년 가까이 체류한 김 전 총리도 독일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통독 과정을

연구한 뒤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작품’이란 사실”이라며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시기는 바로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진만 보여줄 게 아니라 하나의 민중인 남북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교류할 수 있도록 통일의 로드맵을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패널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남남갈등 해소가 시급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반 전 총장은 “언젠가부터 좌파나 보수 등 사람에게 색깔을 덧입히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는데 사상의 자유라고 보기에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기독교인 봉사자들을 만난 일이 많다”면서 “남남갈등을 분석하고 ‘세계 시민’의 일원이라고 교육할 곳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통일 시대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소 목사는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요즘 통일의 꽃길을 여는 마음으로 표를 분석했다”면서 “봄이 돼 꽃이 피는 게 아니라 한 송이 꽃이 봄을 부르는 것인 만큼 우리의 작은 노력이 평화 한반도에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것으로 전해졌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며 생전 불교사상에 심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생이 헛되다는 메시지는 “정치는 허업(虛業)”이라는 그의 말에서도 드러난다. 사석에서 주로 말했는데 2011년 새해인사차 방문했던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에게도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北 주민 마음에 품고 통일 위해 기도를

YWAM ‘뉴코리아 세미나’, 통일사역 전국지부 확장

한국 예수전도단(YWAM·대표 박석건)은 전국의 간사를 대상으로 ‘뉴코리아 세미나’를 열고 통일선교 사역을 전국 지부로 확장기로 했다. YWAM 북한 사역 30주년을 기념하여 향후 사역 방안을 공유키 위해 마련된 세미나는 20일 시작돼 4일간 서울 은평구 탐미전센터에서 열린다.

“한국교회, 영적 양반노릇 도덕적 상놈 기득”

北역류 풀러난 임현수 목사 KWMA 선교전략회의서 강연

“한국교회엔 영적인 양반 노릇 하는 도덕적 상놈들로 가득합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는 처참하게 무너질 겁니다.”

북한에 31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지난해 8월 풀러난 임현수(63·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목사의 일침은 매서웠다.

임 목사는 19일 부산 해운대구 수영로교회에서 열린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선교전략회의(NCOWE)에서 ‘김병 드림’(천국의 꿈)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극한의 고난을 겪은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울림이 컸다. 1000여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한 장내는 시종 숙연한 분위기였다.

임 목사가 언급한 ‘도덕적 상놈’ 담긴 대회 결의문이 발표됐다.

“이 땅에 전쟁 포성 다시는 없게…북한에도 복음을”

한국전쟁 68주년...교계, 북한 선교대회 등 행사 다양

6·25전쟁 발발 68주년을 앞두고 참전 용사에게 감사를 전하는 예배가 열리고 통일과 북한 복음화를 위한 선교대회가 개최되는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는 24일 주일 3부 예배에서 교인 중 김남기(83) 강남현(90) 백영환(85) 집사 등 6·25 참전용사 3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영훈 목사는 “우리는 6·25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참전용사와 감사패를 받은 분들에게 진정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축하했다. 참전용사들은 교회학교 어린이들로부터 꽃다발을 전달받고 교인들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교회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후손들에게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나라사랑 정신을 알리기 위해 7년째 감사패 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생존 참전용사 364명이 감사패와 격려문을 받았다.

서울 영락교회(김운성 목사)는 이날 오후 내 베다니광장에서 ‘2018 북한선교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은 대회는 평화에 초점을 맞췄다.

베다니광장 입구에 세워진 십자가는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머리 부분은 녹색 철조망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이 씌워졌다. 사진을

아라는 표현은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지적하던 중 나왔다. 그는 “한국의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성훈련은 외면한 채 주입식 공부만 시키는데 이런 답을 키우는 양계 사업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지식은 쌓을지 몰라도 신앙인이 견뎌야 할 윤리·도덕성은 외면당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이어 “교회학교가 전멸했고 기독교년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교회를 떠난 잃어버린 청년들이야말로 미전도종족”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약물과 알코올, 음란 문화, 스마트폰 등 온 사회가 중독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고 매년 수십만명이 낙태할 정도로 생명의 값

어치가 사라져 버렸다”며 안타까워했다.

임 목사의 호소는 ‘통렬한 회개’로 귀결됐다.

“회개를 못할 정도로 신앙이 무너진 건 아닌지 선교사들부터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각자 마음에 ‘천국의 꿈’을 품어야 합니다. 육신을 위한 밥만 먹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먹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도덕적 무감각증 환자로 전락하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북한 선교의 대부분을 꼽히는 임 목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을 100여 차례 방문하며 탁아소와 교육기관을 지원해 왔다. 그는 강제 수용소에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성경을 연구하고 평신도 교육과정을 만드는 등 신앙훈련에 매진했다.

비집고 복음이 들어가려면 기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영락교회 북한선교부 담당 한현수 목사는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향한 인적·물질적 준비는 필요하다”며 “북녘 땅에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1-23일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법급식기도원에서는 기독교 장병과 군인가족이 참가한 ‘제28회 6·25성기 기독교장병 구국성회’가 열렸다. 1만5000여명의 참가자들은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다시는 울리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영훈 목사는 설교에서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 목사는 “북한과의 통일시대를 복음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면서 “기도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곽선희 소망교회 원로목사는 약한 것도 실패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으며 감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즐겨 암송하는 미국 신학자 라인홀드 니이버의 기도문을 인용해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냉정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가질 것”을 권면했다.

설교를 들은 장병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한 군대’ ‘군 선교’ 등의 제목을 놓고 기도시간을 가졌다. 정경두 합참의장은 “이번 성회가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불씨가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성회에서는 구호단체인 한국컴패션이 불우 어린이를 돕는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일방 도입 말라”

동반연 등 시민단체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회견

“동성애·동성혼 조장하는 가짜 인권정책 반대한다” “국민 입 막는 종교 차별적 정책 폐지하라.”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NAP가 가진 독소조항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며 전면 개정이나 폐기를 촉구했다. 동반연은 298개 단체의 연합이다.

김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법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NAP가 다음 달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뒤 시행된다는 소문을 접하고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면서 “전면 개정이나 폐기가 답이다. 무리하게 시행하면 인권이란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사대가

벌어진다”고 경고했다.

길 위원장은 “300쪽에 달하는 NAP엔 성평등이란 단어가 27번 나오는데 이는 동성애·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인권교육을 한다는 것도 동성애 확산의 원천이 된다”고 우려했다.

또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성소수자란 단어를 사전에 등재하는 것도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계성 대한민국천주교교도모임 공동대표도 “정책이 공포된 뒤엔 동성애가 급속도로 확산돼 수많은 가정이 파괴된다”면서 “자연의 섭리도, 종교의 윤리도 짓밟는 정책을

반드시 막아 내는 게 국민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박석제 자유와인권연구소 변호사는 “유엔 권고를 근거로 이 같은 정책을 만들고 통과시킨다는데 이는 주권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면서 “법률이 입장에서 폐기가 최선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단체 대표들은 법무부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올바른 제3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 인권정책과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까지 논의됐던 차별금지법안의 규정에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일이 없고 성적지향을 포함할 지도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를 제시했다. 그는 “기독교인은 예수처럼 용서를 즐기는 사람”이라며 “좌파와 우파로 갈라지고 분노도 점철된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도 포용하고 주변을 화평케 하는 ‘굿스메이커’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YWAM의 통일선교 4대 방향 및 현황이 발표됐다. YWAM 뉴코리아네트웍 코디네이터 김병학 목사는 “현재 북한을 위한 성경 준비, 탈북민 지원 및 북한 지역개발 및 구제 사업, 남북 도시 결연과 관련된 다양한 사역을 진

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뉴코리아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중보기도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YWAM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통일선교 사역을 전국 지부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 목사는 “북한 주민을 섬기는 통일선교는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품어야 할 사역”이라며 “YWAM 구성원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품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주역으로 활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교의 창 (104)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선교사 은퇴에 관한 생각

최근 한인 선교계에서는 '은퇴선교사'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980년대 선교사 파송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20년을 기점으로 은퇴 선교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선교사의 출국 전략을 연구하기 시작한 방콕 포럼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97%의 한인 선교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은퇴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교사가 은퇴하는 경우 세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선교지에 남거나 모교회가 있는 한국이나 미국으로 돌

30대 이하 청년 선교사는 22.3%에 불과하다. 이런 비율이라면 2020년에는 65세 이상의 선교사 비율이 15%까지 올라간다. 이 추세라면 지금부터 수년 내에 수천 명의 선교사가 은퇴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눈앞의 당면한 과제임에도 교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다.

2. 선교사 은퇴 시기

선교사의 은퇴 연령을 몇세로 하는 것이 좋은가? 교단과 선교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목회자들처럼 7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14년

로 정책을 세웠다.

GP의 선교사의 노후 생활비는 1인당 월 10만원(US \$90), 부부 월 20만원(US \$180)을 선교사 본인이 원하는 금융기관에 은퇴연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며, 이 금액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면 노후에 1인당 월 US \$550-600, 부부 월 US \$1,100-1,200을 지급받게 된다. 거기에는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면 최소한 월 US \$500을 더 받게 될 것이다.

GP의 선교사의료제도는 다른 교단체들과 비슷하다. 그리고 노후

교사들이 전방이고 후방이고 힘당은 대로 여러 일을 할 수 있다면 분명 한인교회와 선교계에 큰 울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선교사 은퇴를 대비한 정책 목표와 준비

1) 선교사들이 파송단체와 후원교회에게 최소한의 부담만 주고, 노후에 품위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한다. 2)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후배와 현지 교회에 부담이 되거나 사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선교사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잘 정리되고 전수될 수 있도록 한다. 4) 선교사의 은퇴 연령, 은퇴 후의 사역, 연금, 주거 지역, 주택, 의료 등에 관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5)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전환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총신대 선교대학원장을 역임했던 강승수 교수는 몇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선교사 은퇴 이후에도 후원교회가 30-70% 정도의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둘째, 국내외의 여러 복지정책을 잘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셋째, 선교사 본인들에게도 최소한 퇴직적립금을 의무화하고, 총회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에도 가입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맺음 말

전 통계청장 오종남 박사는 "장수가 축복이 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며 목회자의 노후를 걱정할 바 있다. 그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만큼은 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다. 이로써 선교사도 은퇴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어떤 이는 "선교사가 노후를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 보인다"고 질타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선교사는 오랜 타국 생활로 기밀 곳을 찾기가 마땅찮다. 만일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한 자가 아무런 대책 없이 돌아올 때 이는 서로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선교사들은 은퇴 후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끝까지 사역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 아무튼 선교사의 은퇴와 노후대책은 교회와 선교회, 선교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고전 16:15-20). 그 중에서도 선교회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요구된다. 선교회는 선교사역의 성과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소속 선교사들이 노후에도 영적, 정서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배려할 때 장기적으로 견실한 선교가 될 수 있다.

jrsong007@hanmail.net

파송 교회 · 선교현장, 선교전략 인식 차 컸다

KWMA 부산회의 결산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7차 선교전략회의(NCOWE)를 열고 선교 현안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했다. 회의에서는 다양한 전략이 도출됐지만 실제 후원을 받는 파송교회와 인식차가 커서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선교계와 파송교회 사이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전략과 현실 사이, 엇박자

나흘 동안 진행된 NCOWE에서는 수많은 이슈가 나왔다. '비즈니스 선교' '디스포라 선교' '은퇴 선교사 지원' '선교지 이양 방안' '선교 출구전략' '선교사 자녀 교육' '선교사 재배치' 등 20개 가까운 현안이 분과별 토론회를 거쳤다.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선교사 파송을 시작한 한국교회는 사역이 확장될수록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앞선 이슈들도 현지점에서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하는 현안들이지만 담보 상태다.

교세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변수다. KWMA가 올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회는 170개국에 2만743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파송 규모로만 보면 세계 2-3위를 다투는 수준이지만 선교 인프라 구축은 걸음마 단계다.

교세 감소는 선교비 후원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실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선교부의 경우 매달 1100달러(122만원)만 후원해도 '주후원교회' 자격을 부여한다. 주후원교회란 특정 선교사를 전적으로 파송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교단법에는 매달 2200달러(245만원)를 후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선교사 은퇴 이후의 삶도 문제다.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한 뒤 귀국한 A선교사는 "간혹 교회가 선교사 은퇴를 위한 준비를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극히 일부다. 선교사가 사역하면서 은퇴를 준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선교계에 따르면 현재 누구도 은퇴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 단지 고민만 할 뿐이라는 게 현장 분위기다. 파송교회와 선교현장 사이에 발생하는 엇박자는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럼에도 교회의 후원 없는 모두 탁상공론에 그치지 쉽다. 선교계가 '비즈니스 선교'나 '자립선교' 등 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것도 파송교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교육자책이지만 여의치 않다.

선교사, 교회와 머리 맞대라

교회와 선교사들 모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접점을 늘려야 한다. 한인세계선교사회(KWMA)는 내년 7월 1일부터 케냐 몸바사에서 아프리카 선교전략회의를 연다. 이 자리엔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가 자진해 참석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NCOWE에 참석한 이 목사가 선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프리카 선교전략회의 소식을 듣고 즉석에서 결정을 내렸다. 선교 현장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전문가들은 교회와 선교현장의 소통이 확대돼야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안교성 장로회신대 교수는 "교회는 선교사를 '선교 부목사'로 보는 시선을 거둬야 하고 선교사는 교회를 '후원만 하는 곳'으로 봐선 안 된다"면서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서로 알아가야 한다.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백악이 무효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와 선교사 모두 서로 운명공동체임을 인정한 뒤 전략 실행을 위해 머리를 맞대라"고 주문했다.

(미션라이프)



생물학적인 나이로 모든 것을 제단 하는 것은 큰 손실이다. 선교사는 직분은 사임해도 선교는 평생 멈추지 말아야 한다. 선교사에 대한 노후대책은 낭비가 아니라 선교를 튼튼하게 한다.

아오거나 제3국으로 떠나는 것이다. 현지에 남으면 사역과 선교 유산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을 받기 일쑤다.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제3국으로 떠난 경우에는 은퇴 이후 현실이 막막하다.

한 교계 관계자는 "선교사들의 노후 문제는 선교사 개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교단체와 나아가 한인교회가 선교사들과 머리를 맞대 대책을 세우고 지원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제부터라도 한인교회는 선교사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서구 선교기관에 비해 대책 없이 마구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뒷감당을 못한 나머지 한인 해외선교는 앞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방콕포럼에서는 선교사 은퇴시기에 대해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다. 응답자의 44.9%(153명)가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선교사역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70세 까지는 응답은 24.6%(84명), 65세까지는 응답은 17%(58명)였다. 그 외 전체 응답자의 10%인 34명은 아예 선교사에게 은퇴라는 단어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 통계에 의하면 55% 선교사들은 은퇴 이후에도 자신의 경험을 살려 계속해서 선교하기를 원하고 있다.

왜 다수의 선교사들은 종신사역하기를 소원하는가? 첫째는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이다. 선교지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장도에 오른 사람들이 많다. 둘째, 지금은 100세 시대라 젊어졌으므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이다. 셋째, 은퇴 선교사에 대한 노후대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선교사 주택문제는 선교현장에서 사역하며 살던 집을 계속 사용하는 방향이다.

4. 은퇴를 맞은 선교사들을 위한 전략

원칙적으로 선교사는 병이나 현지에서 사건 사고, 추방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평생 선교하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 역사 속에 별과 같이 빛난 선교사들은 한결 같이 현지에 뿌리를 댔다.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라 선교정신이며 열정이다. 70이 넘는 선교사는 직분은 사임해도 에너지와 경륜을 살려 얼마든지 귀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들을 도매금으로 철수시키면 하나님 나라 확장차원에서 큰 손해이다.

더욱이 후생복지들을 누가 다 감당할 것인가? 선교사가 철수하면 모든 것이 끊어진다. 그러나 현지에 남아 계속 선교를 수행하면 실마 하나라도 끊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종신 선교를 돕기 위해서는 한인교회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선교사가 부득불 사유로 은퇴하여 고국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상담 및 멘토링, 선교 훈련 및 전략 수립 분야, 지역 전문가선교동원자, 선교학 교수 등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은퇴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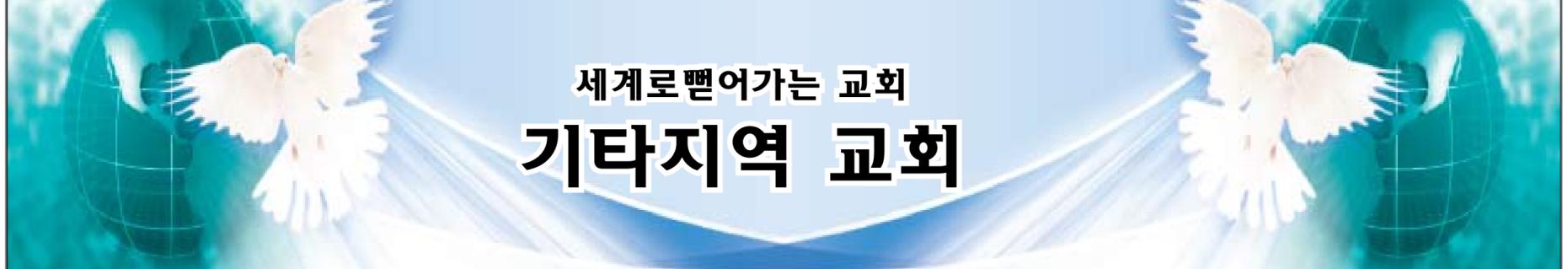
1. 한인 선교사의 연령별 현황

한인 세계선교는 1989년 여행 자유화 정책 이후 선교사 파송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그 때 파송 받은 사람들이 이미 60대에 들어섰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퇴 선교사가 늘어나고 있다.

KRIM(한국선교연구원)의 최근 연령별 선교사 파송 비율을 보면 40대가 42.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대 28.4%, 30대 17.9%, 60대 이상 7.2%, 20대 4.4% 순이었다. 40대 이상이 80%에 육박하고 있으며

3. GP(Global Partners)선교회의 사례

초교과 한인 선교단체로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GP선교회는 선교사의 은퇴연령을 엮었다. 대신 65세가 되면 선교회의 모든 공직에서는 물러나고 건강이 허락되면 선교현장에서 계속 사역하는 방향으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오후예배: 오후 7: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 오전 6:00(토) Tel: (202)579-7576, Fax: (2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1550 Woodbourne Rd., Little Rock, AR 71913 www.omychurch.org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예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1907 www.ljhs.com	벨앨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thel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평일, 주일, 연례예배: 오전 10:45 /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Fax: (704)529-090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	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원부: 오후 1:00 수 오 예 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Fax: (704)529-090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3부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	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역: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jhs.com	앵커리지영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thelchurch.org/	엘파소영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역(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6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킬린노드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부흥예배: 오후 8:00 토요일영양: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letranz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11:15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l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2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후 1시 수 오 예 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mcric.com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원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cuo.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오직 성령으로” 찬양의 축제로

할렐루야 2018 뉴욕복음화대회



지난 20일 할렐루야복음화대회 홍보를 위해 기자회견을 가진 후 교협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오직 성령으로(행1:8)”라는 주제로 열리는 할렐루야 2018 뉴욕복음화대회가 열릴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할렐루야대회는 예년과 다른 점들이 많다. 따라서 뉴욕교협의 대회준비도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우선 감사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의 사정으로 주말이 아닌 주초(월-수) 집회로 인해 인원 동원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회장 이만호 목사는 “대형교회 목회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결과 오히려 주말보다 주초가 더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람들의 생각만 바뀌면 된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고 기도에도 더욱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할렐루야 준비위원회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교협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회 준비 경과를 알리고 언론들에게 홍보를 당부했다.

준비위원장 이광희 목사는 “첫째, 인원동원 둘째, 재정충당”을 강조하면서 매주 2, 3회 모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준비위원회는 (1)조직표 (2)동원 및 홍보 (3)재정 등 3정책을 정해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찬양에 역점을 두고 설교는 30분 정도로 구성된다. 15개 찬양팀이 출연한다.

한국에서 크리스천 밴드인 ‘라스트’, CCM 가수 송진희, 국악찬양가수 구순연, 성곡오페라단장 백기현 교수, 여의도 순복음실업인연합회 뽀라 중장단, 엔제이 클래식 오카리나 앙상블이 참여한다.

뉴욕에서는 장로성가단, 권사선교합창단, 뉴욕 뉴저지 목사사모합창단, 부부합창단, 케리그마중창단, 필그림 무용단, 뉴욕취타대, 프라미스연합성가대 등이 출연한다.

또 10일(화)에는 뉴욕의 유명 흑인 찬양팀 Rev. Stef & Jubilation이 공연한다.

권능을 받는 찬양의 축제”-①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②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③주님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그 권능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찬양의 예배로

▲둘째 날(10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넘치는 성령”-말씀과 성령

신 곳에서 예배하며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며 나가는 증거자로서의 예배로 준비된다.

대회일정은 7월 9일(월), 10일(화), 11일(수), 오후 7시30분이며 장소는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 같은 시간에 어린이대회도 진

7월 9일(월) 10일(화) 11일(수) 오후 7시30분 프라미스교회

이번 대회는 특히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는 대회를 강조한다. 또 설교도 이영훈 목사가 한국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뉴욕교협은 기자들에게 복음화성회 예배 초안을 배부했다.

▲첫째 날(9일): “성령이 임하며

의 운행하심으로 건강한 교회들이 바로서고 크리스천들이 세대와 민족을 떠나 성령으로 하나되는 복음주의적 예배로 사단의 왕국에 치명타를 가하는 공격적 예배로

▲셋째 날(11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는 증인된 삶”-부르

행된다. 어린이대회는 본당 옆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한편 둘째 날(화)은 저녁 대회에 앞서 오전 11시 대동연회장서 한 미교회지도자 기도회가 열린다. 이 기도회는 관례적으로 대회 후 열리는 목회자세미나를 대신해 열리는

할렐루야 2018 대뉴욕복음화대성회
HALLELUJAH NEW YORK EVANGELICAL CRUSADE

오직 성령으로! (행 1:8)

강사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담회장

일시: 7월 9일(월) 7:30 PM
7월 10일(화) 7:30 PM
7월 11일(수) 7:30 PM

장소: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 사무) Promise Church
130-30st Ave, Flushing, NY 11354 (718-321-7800)

대회장 이만호 목사
부대회장 정순원 목사(대동연회장 사무) / 김우현 목사(대동연회장 사무)
준비위원장 이광희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 문 의희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집행위원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 김진화 목사(대동연회장 사무)

www.nyckcg.org · E-mail: nyckcg@gmail.com

행사로, 이영훈 목사와 오웬 E. 윌리엄스 목사(미국 퀸즈교협 회장)가 강사로 서게 된다. 이날 Rev. Stef & Jubilation팀의 특별 찬양이 있으며 기도제목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 양국의 동맹 강화를 위해 △테러로부터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미국교회 지도자 1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원정 기자)

전문성, 융통성 가진 영적 교육 동역자 바란다

처치리더스.컴, 어린이 사역 베테랑 G. 베어드 목사가 제시하는 가정에서 원하는 주일학교 교육 소개

그레그 베어드(Greg Baird) 목사는 베테랑 어린이 사역자로 20년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 샌디에이고 지역의 교회 네 곳을 섬겼으며, 존 맥스웰(John Maxwell)과 데이비드 제레미아(David Jeremiah) 밑에서도 일했다. “ChidrensMinistryLeader.com”의 사역을 통해 계속 소명을 펼쳐가며, 그간 쌓아온 경험을 통해 미국과 전 세계 어린이 사역 리더들이 사역을 준비하고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베어드 목사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오늘날 주일학교 교육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동안 사역 경험을 토대로 제시한다(What Families Want From Church).

현재 어린이 사역과 가정 사역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오며, 쓸 수 있는 자산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정말 잘된 일이다. 그러나 가끔씩 하지만, 이런 사역을 이끄는 우리가 가정에서 원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프로그램을 내놓기도 한다.

경험상 여러 가정들은 표현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바가 명확하다. 이런 원하는 바는 이름을 ‘어린’이 사역이라고 하든지 ‘가정’ 사역이라고 하든지, 우리의 프로그램

에 훌륭한 출발점, 연결점이 된다. 이제 여러 가정이 원하는 것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몇 가지 단어

를 써 보겠다. 여러 가정들은 평범하고 간단하지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원한다. 다들 동의하겠지만, 이게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아닌가? 좋

든 싫든, 프로그램이 재미없으면 잘되지 않는다. 이런 걸 정확히 얘기하는 부모

나 자녀들은 없겠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이 기대하는 바다. 여러 가정은 교회에 영적인 집중을 원하거나 바란다. 부모가 자녀의 제자도에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

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부분에 교회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는 분명해 보일 수 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의도적으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야 하는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동역자

바나(Barna) 설문조사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적인 책임감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단지 어떻게 책임을 다해야 할지 몰라서, 두 가지 부문에 있어서 교회가 동역해 주기를 바란다.

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부분에 교회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는 분명해 보일 수 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의도적으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야 하는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융통성

여러 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 필자가 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들은 주일마다 교회 출석하고, 모든 교회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는 모든 교회력이 하나로 묶였으면 하는 약간의 말도 안 되는 기대감이 있다. 남성, 여성, 청년, 어린이나 소그룹 사역 모두 주일마다 일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보통 예배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정은 교회 프로그램과 기대감에 융통성을 원하고 바란다.

전문성

오늘날과 이 시대에, 대부분의 가정은 시간을 보낼 때도 전문성에 맞닿을 수 있다. 교회에서 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른 곳을 찾을 것이다. 교재와 배움에 전혀 없는 용이할 때문에, 사역에 있어서도 전문성에 대한 핑계가 있을 수 없다. 필자가 느끼는 전문성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와 ‘어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보여줄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마도 소통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큰 소음에 시달린다. 쉴 새 없는 말이 우리에게 날아든다. 우리의 소통은 바로 그 가운데 있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 소통을 크게 하고 끊임없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 가정이 바라는 바다.

자녀 제자도의 기본책임은 부모지만 교회에 바라는 것 있어 학교활동, 과외활동과 유연하게 관계 유지하며 부모와 소통

1. 교회-자녀들이 교회에 있을 때 영적으로 집중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2. 가정-자녀들에게 부모들의 영적인 집중에 있어서 잘 할 수 있

특별 행사를 더하면 가끔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바깥 활동도 중요하고, 또한 신나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활동도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2)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5:00(매일) (절민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Tel: (82)2-2646-319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예배: 오전 5:00 새벽기도예배: 오전 6:30 www.seongsil.or.kr Tel: (02)2-950-998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02)2-950-998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43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8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불로동 137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용마루동 172-29(삼일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shinchn.org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02)926-926-4508 서울시 용마루동 172-29(삼일동) 50-1 www.anamj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4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동 415 www.yango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8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4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북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주일3부예배: 오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성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기독교 경영 전략

기독교 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17)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기독교 전략 경영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점점 험난해지는 기업 환경에 대한 도전은 기업경영전략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유전공학, 안락사, 낙태,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은 인류에게 수많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딜레마를 안겨 주고 있다. 이러한 기술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기존 사회 체제 내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가치와 원리가 이 세상의 도덕적 방향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그리스도인 기업가들에게 있다.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 전략경영이란 "조직이 그 모습을 환경에 지속적으로 연계시켜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과정(Matching process)은 (1)조직 사명의 결정 (2)한

전략은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도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전략경영에서 크고 작은 모든 기업이 존립의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만들어낸 상황에 적응해야 하며, 성경적 원리와 일치하는 행동의 공개적 모범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형성되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독교적 전략경영상 가장 근본적인 의사 결정 사항은, 조직이 존재하기 위한 목적을 나타내는 조직 사명(Organizational mission)을 정립하는 일이다. 이러한 목적은 모든 활동 영역에서 조직의 선택과정을 인도하고 모든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도전, 위기 및 기회를

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며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2. 종업원을 섬김

종업원 자신이나 가족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작업장에서 그들의 심리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딤후5:8). 그리스도인 기업가에게 이와 같은 가르침은 기업 종업원들에게 그들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적절한 임금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의 파탄이라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인 기업가는 종업원의 정서적 및 심리적인 필요를 충족시

“조직이 그 모습을 환경에 지속적으로 연계시켜가는 과정” 조직 사명 정립으로 선택과정 인도하고 의사결정에 영향

경의 분석 (3)환경으로부터의 기회를 이용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 (4)전략의 실행 (5)전략의 감독과 통제라는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단계를 가지고 있다.

전략 경영의 전통적인 정의와 기독교적 정의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의사 결정과 업무 속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통적 전략경영에 관한 글에서는 적응(adapting)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거대 기업의 영향에 관한 논의 외에는 조직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변화시키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속한 환경에 맛을 더하고 썩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우리의 빛을 비추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마5:13-16).

기독교경영전략은 우리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의 명령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으로 조직의 전략이 사용될 수 있으며 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조직의 활동에 대한 목적과 방향을 제공하는

통해서 조직 구성원을 이끌어가는 동기 부여의 동태적인 원천이 된다.

각 기업은 자사를 정의하고 다른 조직과 구분해주는 독특한 사명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사명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서의 그리스도인 기업가는 마땅히 보다 동질적이고 최상위의 사명을 고려해야 한다. 그것은 사람을 섬기는데 헌신하는 것이다.

비록 오늘날 시장 경제 내에서 봉사자의 태도라는 것이 매출액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타인을 섬기는 것이 반드시 이윤 증대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하며 중의 자세로 갖추어야 한다(빌2:5-8). 즉 그리스도인 기업가인 우리의 개인적인 목표나 우리 기업의 최상위의 사명은,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1. 소비자를 섬김

이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합당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통하여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합당한 제품이라 그리스도인 기업가가 로마서 14장 23절의 “믿음으로부터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는 정신에 입각하여 특

킬 수 있도록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스도인 기업가는 직무설계, 사기(Morale), 직무만족(Job satisfaction) 그리고 인적자원관리 영역에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3. 다른 이해 관계자를 섬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헌신, 책임감 및 청지기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창조된 진리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섬기는 데는 기업의 환경을 다루는 방법도 포함된다. 이는 특별히 폐기물, 소음, 환경오염 물질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약탈적인 가격 책정 및 산업 스파이 같은 경쟁자에 대한 행위 등도 포함된다. 과세나 규제에 대한 정부와의 관계도 섬김의 다른 측면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기업가에게는 섬김의 사명이 조직 생존과 이윤 극대화라는 전통적인 조직의 목적보다 우선한다. 성경은 부의 축적 보다는 섬김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두고,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희생하는 것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선순위가 기업의 사명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

dr.jameskoo@yahoo.com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월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왕상2:3-4)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험통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말씀을 확실히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정해주는 것을 좋아합

니다. 그러나 험통한 복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무슨 생각,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약속하신대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화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왕상2:5-6)

본문은 다윗이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반드시 처벌해야 할 사람과 은혜를 갚아야 할 사람을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처벌해야 할 사람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입니다.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니까 요압은 다윗의 조카가 됩니다. 요압은 평생에 다윗의 옆에서 항상 앞장서서 블레셋 군대를 몰리치던 장군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왕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왜 요압을 가

장 먼저 처벌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평화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벨의 아들 아마사”를 죽인 일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왕시대에 군대 장군으로 끝까지 사울왕에게 충성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다윗왕에게 화평조약을 맺기 위해 왔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 나라에 큰 소용돌이를 치게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수 네 지혜대로 행하여(왕상2:5-6)

요압이 또 한사람 아마사를 죽인 것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압살롬의 편에서 도와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다윗이 용서를 해주어 압살롬이 죽은 후에 군대 장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이 아마사를 단칼에 죽여 버렸습니다. 다윗왕은 평화를 원했는데 요압은 다윗왕을 무시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화평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롬12:18). 왜냐하면 주님께서 화평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이 깨져서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평케 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더욱 화평케 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목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왕상2:7)

본문은 다윗왕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준 바실래의 은혜를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바실래는 다윗왕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맨발로 광야로 급히 피신할 때 목숨을 걸고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다윗왕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에게 모든 먹을 것과 침상과 대야와 그릇 등 생활필수품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다윗왕이 돌아올 때 내가 은혜를 갚을 테니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바실래는 거절하고 아들 김

함을 보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은혜 갚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 것은 왕의 아들들에게 주는 축복을 말하는 것으로서 명예와 재물과 권세를 다 주겠다는 엄청난 축복을 말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땅히 당연히 큰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왕상2:8-9)

본문은 다윗왕과 그의 용사들을 저주한 시므이를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은혜를 원수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왕이 가장 어려울 때 심한 말로 욕을 하며 저주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며 돌을 던지는 악한 일을 함으로써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므이는 사울왕의 측근이요 사울왕 때문에 재산과 권력을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왕이 죽으면 재산

을 다 빼앗기고 도망을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과거를 따지지 않고 모든 배나민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풍요로움을 주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주님의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교회를 더욱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토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왕상2:8-9)

시므이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왕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왕이 압살롬의 반역이 무산되고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배나민 사람 천명을 이끌고 다윗왕에게 나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순간 다윗왕이 두려워서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시므이가 보통 사람이었다면 멀리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윗왕의 처분을 기다렸을 텐데 순간 아부해 위기를 모면합니다. 성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솔직히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부하고 기회를 봐서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진정 늘 진실하게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강사: 라흥채 목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제5차

지난 4차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맞춤학습여행

개신교 역사기행 + 유럽 문화여행

종교개혁 발상지 유럽 5개국 학습여행

• 여행일정: 2018년 9월 17일(월)-29일(토) 총 12박13일 • 참가경비: 3,900달러

미주전역, 한국에서도 출발 가능합니다.

모집정원: 40명(선착순)
등록 예약금: 1,000달러



파리의 노트담 성당



바르트부르크 성

루터가 숨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곳



미텐메르크 성 교외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인 비텐베르크 성교회 앞에서 (3차여행단)



안후스 동상 앞



런던에 있는 웨슬리 재플



요한 웨슬리가 홀리클럽을 결성한 옥스포드대학교



제네바의 레만 호수

알프스의 리기 마운트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여정
1일 9.17(월)	LA			LA 공항 국제선 터미널 집결, 런던행 항공기 탑승
2일 9.18(화)	런던	전용버스		런던 도착 후 트라팔가, 런던 브리지 등 관광 후 석식, 호텔 휴식
3일 9.19(수)	런던	전용버스	08:00	(영국의 종교개혁 관련 순례) 울더스 게이트, 웨슬리재플 번힐 필드, 옥스포드 대학 등 순례
4일 9.20(목)	런던 파리	전용버스 유로스타	08:00	버킹검궁(근위병 교대식), 대영 박물관,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 빅벤 등 관광 후 유로스타 편으로 파리로 이동 후 호텔 휴식
5일 9.21(금)	파리	전용버스	08:00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개선문, 상제리제, 콩코르 광장, 노트담 사원, 세느강 유람선(음선) 등 관광 후 호텔 휴식
6일 9.22(토)	파리 제네바	기차 전용버스		(칼빈의 종교개혁 관련 순례) 칼빈이 목회했던 St. Pierre교회, 목사관, 바젤대학, 종교개혁 기념비, 레만 호수 등 순례 후 호텔 휴식
7일 9.23(일)	제네바 취리히	전용버스	7:00	알프스, 리기마운트 등정후 취리히로 이동후 휴식
8일 9.24(월)	취리히	전용버스	7:00	쾨빙글리가 목회했던 그로스민스터 교회, 샤갈의 스테인드글라스로 유명한 프라우 윈스터 교회 순례 후 하이델베르크로 이동, 하이델베르크 고성, 대학가 등 순례 후 보름스(마틴루터가 보름스 종교재판을 받은곳) 순례 후 호텔 휴식
9일 9.25(화)	프랑크푸르트 아이젠아흐 에어프루트		7:00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괴테하우스, 뢰머광장 순례 후, 아이젠아흐로 이동, 루터 생가, 바르트부르크 고성(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곳) 바하 관련 순례후 에어프루트 도착 휴식
10일 9.26(수)	에어프루트 라이프찌히 비텐베르크		7:00	마틴루터가 대학을 다니고 수도생활을 시작한 에어프루트 순례, 에어프루트 등, 크레머 다리, 페테스부르크 요새 등 순례 후 라이프찌히로 이동, 바하가 지휘자로 근무한 St. Thomas교회, 통일 독일의 시발점인 쉿플시위로 유명한 St. Nicolas교회 순례후 비텐베르크로 이동, 비텐베르크교회(95개조 반박문이 걸린 곳), 마틴루터와 열광하던 동상, 마틴루터 생가, 박물관 순례후 호텔 휴식
11일 9.27(목)	드레스덴 프라하		8:00	동부독일의 파리라 불리는 드레스덴 관광 후 체코의 수도 프라하로 이동, 석식후 아름다운 프라하의 야경 관광 후 호텔 휴식
12일 9.28(금)	프라하		8:00	(안 후스 종교개혁 관련 순례) 안 후스 기념(베들레헴)교회 순례, 프라하 고성, 대통령궁, 비트성당, 카를교, 바츨라프 광장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프라하 관광 후 휴식
13일 9.29(토)	프라하 LA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프라하 출발 LA 행 항공기 탑승. LA 도착후 SWEET HOME 으로...

5차 학습여행의 주요 방문도시들

- *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홀리클럽'을 결성했던 옥스포드 대학
- * 칼빈의 후예들이 위그노의 나라 프랑스 파리
- * 존 칼빈이 목회하던 제네바 생피에르교회와 칼빈 생가
- * 츠빙글리가 목회하던 취리히 그로스민스터 교회
- * 알프스의 아름다운 경관을 한눈에 리기 마운트
- * 마틴 루터가 재판을 받은 보름스
- *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바르트부르크 성
- * 루터가 사제가 되고 수도사가 되었던 에르푸르트
- *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인 비텐베르크 성교회와 루터 생가
- * 북부의 아테네로 불리는 드레스덴
- * 루터보다 100년 일찍 교황청의 불의에 도전한 안 후스의 도시 프라하



비텐베르크 마르크트 광장에서 (2차 참가자들)

파리의 에펠탑

문의전화: (213) 383-2345, 이메일: cweeklyusa@gmail.com
직통 (818) 624-2190
*카톡으로 신청서를 요청하셔도 됩니다(카톡 ID: myungcho2004)



유서깊은 대학도시 하이델베르크

참가 신청서 유의사항

1. 참가 신청서 성명은 반드시 여권의 영문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2. 참가 신청서를 요청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3. 그룹으로 참가를 원하는 교회나 단체에는 직접 찾아가 설명회를 열어드립니다

제5차 종교개혁 발상지 학습여행 신청서

신청인 (한글) _____ (영문) _____

현주소 _____

생년월일 _____

Tel _____ E-mail _____

여권번호 _____ 여권만기일 _____

동반자 (한글) _____ (영문) _____

_____ Date _____

신청인 서명 _____ 동반자 서명 _____

신청서 보낼 곳 : 크리스천 위클리 3700 Wilshire Blvd. #755, Los Angeles, CA 90010